대본

<어두운 무대를 장엄한 서곡으로 시작한다. 서곡 중에 말발굽 소리, 창과 칼이 부딪치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과 함성, 북과 나팔소리,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소리가 어수선하게 함께 들린다. 전쟁을 묘사한 음향이 끝나고 뒤이어 서곡이 끝나면 잠시 적막을 유지하다가 화면에 자막>

[자막/나레이션]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는 양국에 많은 사상자와 피해만 남긴 채 사망한다. 그의 죽음과 함께 양국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정권은 몰락하고 여러 영주가 분열된다.
이후, 에도(도쿄)지역에서 일본의 통일을 꿈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덕천가강)는 분열된 영주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오사카지역에서 끝까지 도요토미 가문을 따르던 서군을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시킨 후 일본을 통일한다.
이로써 에도막부가 시작되며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풍신수길이 일으킨 전쟁으로 단절된 조선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려 조선에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한 사절단 파견을 요청한다.

#1장 프롤로그, 에도성

<신하들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세키가하라 전투와 그동안 일본이 통일되기 위해 치른 전쟁 무용담을 나누며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막부신하1] 우리 쇼군은 정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타고나신 분 같습니다.

[막부신하2] 그럼요! 이마가와 가문의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인질 생활도 이겨내시고 처세술 또한 훌륭하시니, 역사에 성군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막부신하1] (고개를 끄덕이며) 세키가하라 전투에 우리 동군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도움도 모두 쇼군의 계획된 처세술 덕분이겠지요.

[막부신하2] (한 발짝 나서서 자랑스럽게) 그것뿐이요? 데루모토도 참전하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우리 쇼군을 돕고 있다는 뜻이지요.

[막부신하1] (두 발짝 앞으로 나서서) 이제 새로이 에도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쇼군을 모시고 강성한 에도막부 시대를 열어 봅시다!

[막부신하2] 맞습니다!
백성이 이제 편안하게 살도록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모든 신하가 서로 동감하며 격려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하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질 무렵,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등장을 알리는 음악이 울린다>

#1. <BGM :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장>

[막부신하1] (근엄한 목소리로) 쇼군 입장하십니다!

<매를 어깨 위에 얻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러 신하의 인사를 받으며 카리스마 있는 표정과 자세로 입장하고 에도성의 신하들은 오른팔을 연달아 들었다 내리며 계속해서 "쇼군! 쇼군! 쇼군!...." 을 외친다>

[덕천가강] (신하들과 충분히 인사를 나누다 자리에 앉으며) 일본을 통일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하느라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소.
단! 이미 말했듯이 동군과 서군은 이제 모두 잊으시오.
과거에 서군이었다 해도 투항한 자들은 모두 받아들이시오.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모든신하] (오른팔을 연달아 들었다 내리며) 쇼군! 쇼군! 쇼군! 쇼군!

[덕천가강] 우리 일본은 이제 진정한 통일로 평화로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모든신하] 쇼군! 쇼군! 쇼군! 쇼군! (오른팔을 연달아 들었다 내리며)

<잠시 축하의 시간이 지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덕천가강] (벌떡 일어나 양팔을 벌리며) 그만! 그만! 하시오!

(다시 자리에 앉아서 침묵)…….

<에도성 안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고 모든 신하는 얼어붙는다. 심각한 표정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리에 털썩 앉으며 고민에 빠진 얼굴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덕천가강]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소. 바로 조선이요!
(격앙된 어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일으킨 전쟁이…….

<신하들이 소곤거리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두 긴장하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결국, 한 신하가 용기 내어 나선다>

[막부신하1]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7년간의 전쟁이 끝 난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쟁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말끝을 흐린다)

[덕천가강] 이것 보시오! 누가 전쟁 이야기를 한다 했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으로 이미 우리의 많은 백성과 병사가 죽었소.
조선 역시 막심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요…….

<신하들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한숨을 놓으며 이내 쇼군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막부신하2] 맞습니다! 두 번의 전쟁으로 양국이 너무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덕천가강] 그렇소! (고개를 절레절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오.
또한, 우리는 조선에 파병한 한 적이 없소.
그것은 도요토미의 전쟁이었소!
(흥분하며)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희생당했는가?
또한, 희생당한 병사들의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모든신하] 맞습니다. 쇼군!

[덕천가강] 조선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오. 하물며 핏줄도 같은 나라인 것을…. 도요토미의 전쟁이 아니었다면 서로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을….

(분개하다 진정하며) 그래서 내가 과거의 상처를 아물게 할 묘책을 생각해 보았소. 조선의 국왕에게 친선의 편지를 보내려 하오.

[모든신하]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에 놀라는 표정으로 수군수군)…….

[덕천가강] 왜! 대답들이 없는가? 조선에 국서를 보내 사절단을 요청하시오. 조선의 사절단이 우리에게 와준다면 지방의 군주들과 백성들도 나와 우리 막부를 우러러볼 것이오. 또한, 자연스럽게 청나라와의 교류 길도 열려 외교적 고립을 피하게 될 것이오.
반대하는 의견이 있소?
(눈을 부라리며 신하들을 좌우로 살피다 바로 이어)
고맙소! 모두 내 뜻을 따르는 것으로 알겠소!

<신하들은 쇼군의 강력한 어조에 반대하지 못하며 쇼군의 눈치를 살핀다>

[모든신하] (어쩔 수 없이 사분오열된 대답들) 마…. 맞습니다. 쇼군!

[덕천가강] 대답들이 왜! 그러한가? 나의 명에 따를 수 없다는 뜻인가?

[모든신하] (약간 일치된 대답) 아…. 알겠습니다. 쇼군!

[덕천가강]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럼, 더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시행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조선에 사절단을 요청하여 양국의 국교와 신뢰를 회복하시오!

[모든신하] (완전히 일치된 대답) 예! 천명을 받들겠나이다!
(왼팔로 무기를 들었나 내림을 반복) 쇼군! 쇼군!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족한 듯이 일어서서 고개를 끄떡이고 처세술에 강한 쇼군답게 정사를 논의할 때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지만 자리에 내려와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주변의 신하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어깨 위의 매를 신하들에게 보여주며 장난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한다. 신하들은 연신 쇼군을 외치고 함성이 점점 작아지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온다>

#M1. <평화를 위해 싸웠노라 : 솔로> / 덕천가강

[덕천가강] **전쟁은 우리를 강하고 용감스럽게 만들지만**
얻는 건 이겼을 때 잠시의 기쁜 착각

많은 전쟁 속에서 많은 희생 속에서
파괴와 죽음의 댓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무엇을 위해 피를 흘리고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누구 대신해 서로 죽였나?
이유는 단 하나 평생의 내 소원, 전국에 통일을 전국에 평화를
권력과 재물은 한 줌의 흙일 뿐, 명예와 권위는 인생의 허무함
이 모든 전쟁은 평화를 지키는, 단 한 가지의 이유
백성의 죽음을 병사의 죽음을 백성의 눈물을 병사의 눈물을
하늘의 신이여! 평화의 신이여! 이들의 가족을 이들의 후손을
불쌍히 여기고 갸륵히 여겨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땅에서
살게 하소서 미안하다! 죽은 백성들이여, 미안하다!
죽은 병사들이여, 그대들의 죽음과 맞바꾼 평화
그대들의 후손이라도 평화의 땅에 살게 하겠노라.
남은 인생 지금이라도 나의 삶은 백성을 위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살겠노라.

[모든신하] (왼팔로 무기를 들었나 내림을 반복) 쇼군! 쇼군! 쇼군! 쇼군!

<쇼군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퇴장한다>

#1. <BGM : 덕천가강 퇴장>

<통신사절단의 자료와 3000여 km의 여정을 스크린에 지도화 함께 나레이션>

[자막/나레이션] 이후 도쿠가와막부는 260여 년간 일본 역사에 평화의 시대로 기록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평화사절단 요청은 양국 신하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대마도 번주에 의해 양국의 교류는 다시 이어지고 204년간, 12회의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어 양국의 문화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이야기는 1763년, 영조 39년, 열한 번째 통신사파견에 근거한다.

#2장 1763년,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어떤 신하들은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본인의 언성을 높이는 중이다. 노론과 소론의 논쟁이 왕의 미간을 찡그리게 만든다>

[신하1]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2] 아니 되옵니다. 전하!

[신하들] (동시에) 아니 되옵니다!
(동시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의 다툼에 참다못한 영조는 신하들의 언쟁을 꾸짖듯이 멈추게 한다>

[영조] 자! 자! 그만! 그만! 그만두시오! 왜 공들의 논쟁은 항상 이러한가? 백성을 위한 논쟁이요? 아니면 공들을 위한 논쟁인가?

[신하들] (모두 머리를 숙이며 급히 각자의 위치로) 황공하옵니다.

[영조] (귀찮은 듯이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시오.

[신하들] (모두 고개를 숙이며) 예! 전하.

[신하1] 이번에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하루가 열 번째 쇼군으로 책봉된다고 하옵니다. 이어 조선의 통신사절단을 요청하는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통신사절단을 파견하여 새로운 쇼군의 책봉을 감축하면 어떻겠사옵니까?

[신하2]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일본과의 교류는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하옵니다. 청나라도 탐탁지 않게 여길 듯합니다. 굳이 청나라의 눈 밖에 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옵니다.

[신하3] 전하! 160여 년간 있었던 열 차례의 통신사 교류로 양국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사옵니다.

[신하4] 양국의 새로운 문물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남쪽 지역에 왜구의 출현도 거의 없어지고 있사옵니다.

[신하2] 전하! 아니 되옵니다. 조선은 청나라와의 관계로도 충분하옵니다. 차라리 청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시는 것이 낫다고 사료 되옵니다.

[신하1] 청나라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옵니다.

[영조] 자! 자! 그만하시오!
(신하들은 모두 입을 닫는다) 우리는 200년 동안 통신사로 일본과 교류하며 유대하고 있소. 마침 새로운 쇼군이 즉위한다고 사절단을 요청하였으니,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오.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사절단을 파견하여 축하하도록 하시오!
(위엄있게 말하고 앉는다)

[신하2] 수 (한 발짝 나와 숙이며)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사절단은 족히 백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6개월 이상, 길게는 일 년의 기간이 걸리옵니다. 또한, 왕복 7천 리가 넘는 여정과 험한 바닷길 때문에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례를 보면 유서를 써놓고 가는 이들도 있었사옵니다.

[영조] 그만하라 하지 않았소! 경들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오. 선례라 했소? 풍신수길의 난 이후 150년 동안 이미 열 번의 사절단 교류가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선조들의 선례는 모두 필요 없는 짓들을 했다는 것이오?

[신하3] (당황해하며) 그…. 그….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신하4] 전하! 그동안 사절단의 선례를 보면 사절단이 지나가는 충주, 문경, 영천, 울산 등, 각 고을의 재주꾼들을 현지에서 더 선발하여 사절단의 인원을 충족시킴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배들이 사절단의 배를 호위하여 최대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양국의 외교적 관계 개선에 비하면 약간의 위험성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영조] 그렇소!
(앉아서 듣다가 일어난다) 나도 동감하는 바이오.
(단호하게) 짐은 이미 통신사파견을 결정했으니 경들도 따라주시오!

[신하들] (모두 고개를 숙이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노론의 신하들은 마땅치 못한 표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따른다. 왕은 잠시의 틈을 타서 바로 말을 이어간다>

[영조] (자리에 앉으며) 그럼 누가 사절단을 이끌고 다녀오겠소?
(신하들을 살피며) 저기…. 김공이 일본에 다녀오면 어떻겠습니까?

[신하2] (머뭇거림)
저는 노모가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기 어렵사옵니다.

[영조] (어쩔 수 없이 다른 신하를 지적하며) 그럼…. 이공은 어떠한가?

[신하4] (머뭇거림) 저는 이번에 과년한 자식의 혼사가 있사옵니다.

[영조] (어쩔 수 없이 다른 신하들을 두루 살피며)
이런, 이런, 그럼, 누가 다녀오겠소?

<신하들 서로 눈치를 살피며 회피할 때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조엄이 선뜻 나선다>

[조엄] 전하! 소신에게 기회를 주시면 통신사 일행을 잘 이끌고
다녀오겠사옵나이다.

[영조] (반갑게) 오호라! 경상도 관찰사를 훌륭하게 마치고 온 조엄공!
공은 학식뿐만 아니라 교양까지 갖추었다고 들었소.
그대 같은 위인이 정사를 맡아 준다면 우리 통신사는 조선의 힘이 될 것이요. 더는 망설일 필요 없소.
(망설임 없이) 조엄을 통신사의 정사로 임명하노라!

[조엄] (한 발짝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인, 신명을 다하여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영조] (기립하며 위엄있게) 일본과 우리는 예로부터 뿌리가 같은 민족이었소. 그동안 서로 소원했으니, 이번에 조엄을 정사로 하여 화원, 의원, 역관, 악사와 많은 재주꾼을 함께 파견하고 양국의 문화교류에 힘쓰시오! 통신사는 분명히 역사에 화평의 씨앗으로 기억이 될 것이오! 화평의 씨앗!

[신하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예, 전하~ 명을 받들겠사옵나이다.

#M2. <백성을 생각하라 : 솔로> / 영조

[영조] **조선을 이끈지 어언 사십년**
신하들의 언쟁만 늘고 있구나!
언쟁이 계속될수록 백성만 고달파
언쟁이 계속될수록 조선은 기울어

언쟁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기울어

불쌍한 백성을 생각하라 조선을 생각하라
한 많은 백성을 생각하라 나라를 생각하라
누구를 위한 언쟁인가 백성을 생각하라
백성의 절규를 사대부는 들어라
당쟁할 힘으로 조선을 생각하라.
당쟁할 힘으로 백성을 생각하라
하늘이시여 조선을 살피소서
상제님이여 백성을 살피소서
고달픈 백성을 생각하라 조선을 생각하라
가련한 백성을 기억하라 희생을 기억하라
한 많은 백성을 생각하라 나라를 생각하라

#3장 간신의 음모, 고택

<신하들이 어두 컴컴한 노론 수장의 집에서 삼삼오오 모여 의논을 하다 수장이 등장하자 한자리에 모여 앉는다>

[신하2] 왕이 너무 기고만장해…. 우리의 존재감을 더 알리려면 일본과의 교류를 막아야겠습니다. 북쪽의 여진족도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고 일단 청나라에도 알려서 반대의 뜻을 받아내던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평화는 무슨 평화! 너무 평화로우면 백성이 나태해지게 되어 있어! 안 그렇습니까?

[신하들] (한목소리로) 맞습니다!

[신하2] 백성은 그냥 우리의 일꾼일 뿐이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세금 바치고 하면 되는 거지요.

[신하들] 맞습니다.

[신하2] (간사한 미소와 표정) 백성이 똑똑해지면 우리만 피곤할 뿐입니다.

[신하4] 이미 통신사절단의 파견은 왕이 결정해 버렸으니, 사절단을 방해할 방법이나 생각해 봅시다.

[신하2] 그렇지! 그거야!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지요!

일단 통신사절단의 행렬을 여러모로 방해합시다.

[신하들] (간사한 웃음소리로) 히히히히히히히히

<고택은 간신들의 웃음으로 넘쳐나고 음향은 에코로 이를 더 극대화한다.>

#M3. <간신의 춤 : 이중창. 코러스> / 신하들

[노론1] **우리는 충신이다. 나라는 필요 없어**
[노론2]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되지**
[노론1] **백성은 우리를 위해 존재 하는 것**
[노론2] **웃음은 간사하고, 이간질도 잘하고**
[노론1] **잔꾀가 많고 이기적이고**
[노론2] **양심도 없고 얼굴도 두꺼워야해**
[노론들]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노론1] **우리는 충신이다**
[노론2] **우리는 충신이다**
[노론1] **나라는 필요 없어,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되지**
[노론2] **백성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노론들]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신하2] 세도정치만이 우리가 살 방법 아니겠소?
(간사하게) 우리가 잘살아야지, 나라는 무슨 나라야. 우리의 권세를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면 되는 것이지요. 권력을 가진 자가 역사를 쓸 수 있으니 결국, 권력을 가진 우리가 충신 아니겠소?
우리가 정의라는 것이지요!

[신하4] 맞습니다!
(최대한 간사한 웃음) 히히히...

[신하2] 일단 국서가 쇼군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서를 불태워 없앨 수도 없고…. 뭔가 묘책이 없겠소?

[신하5] 국서가 전달되기 전에 국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떨는지요?

[신하2] (혀를 차며) 쯧쯧쯧, 생각 좀 하고 이야기하시오!
한 나라의 국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오?

[신하4] 국서에 일본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넣어 위조하면 어떻겠사옵니까?

[신하2] 음…. 좋긴 하지만 왕의 편지를 위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요.
혹시라도 위조한 것이 들키는 날이면 우리 노론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신하4] 국서함이 쇼군에게 전달되기 전에 국서에 독을 발라 놓으면 어떻겠사옵니까? 국서에 독을 발라 놓으면 일본의 쇼군이 국서를 읽은 후 독에 중독될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사절단과 조정에 책임을 묻겠지요. 우리는 물론,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저 놈들에게 책임도 돌리면 우리 권세는 더더욱 힘을 갖겠지요. 왕을 누를 만큼요.

[신하들] (모두 손으로 허벅지를 치며) 완벽합니다. 완벽한 계략입니다!

[신하2] 국서에 독을 바른다……. 독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신하2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다)
그대도 머리를 쓸 줄 아는구려. 어허! 이런 충신을 봤나!

[신하4]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미 사람까지 구해 놓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첩자가 등장하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성을 맹세한다. 신하2는 첩자에게 두루마리 종이를 펴서 독을 바르는 몸짓까지 해 보이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신하들] 사절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방해하라!

그리고, 일본의 쇼군이 국서를 읽기 전 국서에 독을 발라 음해하라!

그러면, 우리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간사하고 높은 어조로) 히히히히히히히히.....

#4장 통신사절단 선발, 관청의 마당 <BGM과 조명>

<전국에서 온 재주꾼들이 이것저것 각자의 재주를 선보인다. 삼삼오오 모인 인원들의 수가 제법 되고 잔칫집 분위기다. 소동들이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사물놀이도 한창이다>

[동수] 사물놀이 합격이오! 소동들 합격이오!
자! 자! 재주 있는 사람은 차례대로 줄을 서시오!
자! 다음은 누가 나서겠소?

[첩자] (줄 선 사람들 주위를 맴돌며) 뽑혀가면 가면 뭐 해?
1년이 걸릴 수도 있대! 가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타지에서 죽으라는 건가? 유서를 써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박치기] (박치기로 무언가 깨는 것을 보여주며) 내래! 평양에서 왔씨요.

[동수] 합격!

<합격을 호명 받은 재주꾼들은 뛸 듯이 기뻐한다>

[쇠꾼] (상모돌리기) 내는 김천에서 왔습니데이.

[동수] (붓으로 표시하며) 합격!

[무예] (택견 동작) 저는 충청도 홍성에서 왔구먼유.

[동수] (붓으로 표시하며) 합격!

[첩자] 힘들게 걷기만 하고 술은 아예 금한다는구먼….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낫지.

[판소리] (노래 한 자락 후) 나는 진도에서 왔지라

[동수] (붓으로 표시하며) 합격!

[장기] (장기 자랑) 나는 장기와 바둑을 잘 둔다오.
나와 붙어서 이긴 자가 아직 없지.

[관상] (돋보기로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살핀다) 나는 전주의 관상가요.
사람의 생김새로 길흉화복을 이야기할 수 있지.

[동수] (붓으로 표시하며) 합격! 합격!

[첩자] 혹시 아프면 어떻게! 혼자 돌아올 수도 없고. 고생길이 훤하네.

[한의사] 내가 고쳐주리다 침 한 방이면 못 고칠 것이 없지.

[동수] (붓으로 표시하며) 합격!

[홍도] (붓으로 휘저으며) 소인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M4. <나는 그림쟁이 : 솔로> / 김홍도

[홍도] **나는야 조선의 그림쟁이**
나는야 최고의 그림쟁이
나는 행복해 붓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붓으로 모두 털어버려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붓으로 모두 털어버려
나는야 조선의 그림쟁이
나는야 최고의 그림쟁이
나는 행복해 붓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지
인생의 모든 희, 노, 애, 락 나의 붓으로 그려내지
나의 붓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가득 채울거야
삶은 덧없이 흐르지만
나의 붓으로 담아내지
나의 붓으로 이 세상에 멋진 인생을 그릴 거야
나는야 조선의 그림쟁이
나는야 최고의 그림쟁이
나는 행복해 붓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지

[동수] (붓으로 표시하며) 합격! 다음!

[자막/나레이션] 통신사절단에는 선발을 통해서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절단으로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출되어 유서를 써 놓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동래성(부산)까지 가는 동안 지나치는 고을에서 해당 지역의 재주꾼들이 함께 합류하였다.

#5장 통신사 출정식, 경복궁

<통신사의 출정식에는 조정의 많은 신하가 참석해있다. 영조는 통신사절단의 규모를 보고 흡족해하고 있으나 한쪽의 노론 신하들은 끝까지 못마땅한 표정이다. 통신사의 순서는 기수단(청도라는 깃발 사용)을 필두로 이어 용의 그림 깃발, 군악 깃발, 정사, 부사 순으로 깃발 다음으로는 사이사이 그 깃발에 맞는 무리가 정렬해 있다>

[조엄] 전하! 신하 조엄, 전하께 통신사절단의 출정을 고하옵니다!
(임금을 향해 절을 한다)

#5a. <BGM : 북과 나팔소리> / 북. 나팔과 국악

[영조] 오호라! 벌써 떠날 채비를 끝냈구려~ 준비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소. 이 많은 인재를 보니 짐의 마음이 든든해지는구려 한편으로는 먼 길을 가는 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내 하늘의 상제님과 종묘사직에 그대들의 안위를 기원하겠소.

[일행모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영조] 통신사의 정사인 조엄공에게 국서를 전달하라!
(신하가 국서함을 전달한다)

[조엄] (한 발 앞으로 나와 국서함을 받는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인 정사 조엄을 비롯하여 부사, 서장관을 비롯하여 기수단, 호위대, 가마꾼, 군악 등 각 분야의 재주꾼들과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천의 도공, 충주의 악공, 영천의 마상재, 울산에서 씨름꾼, 동래의 노꾼이 합류하게 될 것이며 총 478명의 인원이 전하의 어명을 받들어 일본의 쇼군에게 국서를 전달하고 돌아오겠나이다.
(임금께 절을 한다)

[영조] 훌륭하오! 훌륭해! 내 양국의 화평과 새로운 쇼군의 등극을 축하하는 글을 써두었으니 잘 전달하고 모두 무탈하게 다녀오기를 바라오.

[일행모두] (임금께 절을 하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절단 일행이 북소리와 함께 기수단을 따라 순서대로 이동한다>

#5b. <BGM : 북과 나팔소리> / 북. 나팔과 국악

#6장 재주꾼들의 합류, 여러 지역

<북과 나팔소리와 함께 기수단(청도라는 깃발 사용) 그다음 용의 그림 깃발, 군악 깃발, 정사, 부사순으로 깃발이 있고 다음으로는 사이사이 그 깃발에 맞는 무리가 정렬해 출발한다>

#6a.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화면에 지도와 이동 경로)

[사절단] **우리는 통신사 우리는 통신사**
평화를 전하는 우리는 통신사
조선과 일본의 문화의 교류로
신뢰와 신의로 양국에 화평을
여정은 칠천리 기간은 십개월
열정의 교류로 세상에 평화를
얼씨구~
우리는 통신사 우리는 통신사
평화를 전하는 우리는 통신사

[도공] (도자기를 들고 등장) 이천에 도공이요!
(흙으로 도자기를 들고 등장하고 페이드다운 후, 조명 켜질 때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 페이드다운 후, 조명 켜질 때 다시 도자기를 머리 위로 듦)

[일행모두] (박수갈채) 와 아~ 와 아~ (부관의 답을 대신하며) 합격!

#6b. <BGM :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화면에 지도와 이동 경로)

[가야금] (병창으로 30초 연주하며) 충주에서 온 우륵의 후손이요

[일행모두] (박수갈채) 와 아~ 와 아~ (부관의 답을 대신하며) 합격!

[국궁] (국궁시범) 여기 국궁도 있습니다!

[일행모두] (박수갈채) 와 아~ 와 아~ (부관의 답을 대신하며) 합격!

#6c. <BGM :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화면에 지도와 이동 경로)

[인삼] (인삼자랑) 풍기에서 왔습니다.
이 인삼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몸의 부기를 빼주고 사람에 기의 순환을 도와 무병장수 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한번 잡숴봐!

[일행모두] (박수갈채) 와 아~ 와 아~ (부관의 답을 대신하며) 합격!

#6d. <BGM :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화면에 지도와 이동 경로)

[마상재] (마상재 시범을 보이며) 영천의 말꾼들입니다.

[일행모두] (박수갈채) 와 아~ 와 아~ (부관의 답을 대신하며) 합격!

#6e. <BGM :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화면에 지도와 이동 경로)

[씨름꾼]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울산의 씨름꾼이요!
배지기! (배지기 기술을 보여준다)

[일행모두] (박수갈채) 와 아~ 와 아~

[씨름꾼] 밭다리! (밭다리 기술을 보여준다)

[일행모두] (박수갈채) 와 아~ 와 아~

[씨름꾼] 안다리! (안다리 기술을 보여준다)

[일행모두] (박수갈채) 와 아~ 와 아~

[씨름꾼] 들배지기! (들배지기 기술을 보여준다)

[일행모두] (박수갈채) 와 아~ 와 아~ (부관의 답을 대신하며) 합격!

#M6. <씨름의 노래 : 솔로. 코러스> / 씨름1. 2. 씨름선수들

[씨름선수1] **모래판 위의 두 장사는 당당하게 서 있을 뿐**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씨름선수2] **치우천황시대부터 단군조선 시대 이어**
사국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왔네
[씨름선수1] **오로지 힘과 기술만이 사람들 함성을 자아내지**
사나이의 땀방울은 모래판 위에

[씨름선수들] 뒹구르르, 뒹구르르, 뒹구르르, 뒹군다
[씨름선수1] 우렁찬 기압 소리만이 사람들 탄성을 자아내지
[씨름선수2] 사나이의 정열은 모래판 위에
[씨름선수들] 활활활활 활활활활 활활활활 불탄다.
[씨름선수1] 앞발 걸고 왼팔 당겨 중심 뺏고 내다 꽂아!
[씨름선수들] 오금걸이!
[씨름선수2] 손기술로 잡아채고 오른 다리 걸어 넘겨!
[씨름선수들] 호미걸이!
[씨름선수1] 잡아당겨 배꼽 위로 들어 올려 넘어 트려!
[씨름선수들] 들배지기!
[씨름선수2] 손기술, 다리기술, 허리기술, 들기술
[씨름선수들] 혼합기술!
[씨름선수1] 모래판위에 장사는 당당하게 서있을 뿐
[씨름선수들] 위풍당당!
[씨름선수2]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씨름선수들] 대장부!
[씨름선수들] 치우천황시대부터 단군 조선시대 이어
[씨름선수들] 동이족의!
[씨름선수1] 사국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온
[씨름선수들] 전통놀이!
[씨름선수들] 오십 오가지 기술들이 모래판위를 뒹굴고
[씨름선수2] 오십 오가지 기술들이 모래판위에 타오르네
[씨름선수들] 난장판, 애기판, 총각판, 오선위기 상씨름판
[씨름선수1] 일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놀이라네
[씨름선수2] 으랏차차! 으랏차차! 으랏차차! 으랏차차!
[씨름선수1] 으랏차차! 으랏차차! 으랏차차! 으랏차차!
[씨름선수들] 으 랏 차 차!

<한양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러 사절단 일행은 무사히 동래성에 다다른다>

#6f. <BGM :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화면에 지도와 이동 경로)

#7장 해신제, 동래 영가대

<동래성에 도착하자마자 정사는 통신사 일행의 장비와 인원들을 둘러보며 내일 있을 해신제를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조엄] 내일은 해신제를 드리는 날이다. 금주는 당연히 알 것이다. 담배도 금하며 모두 목욕재계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길 바란다.

[일행 모두] 예!

<통신사 일행은 서로 등을 밀어주고 활기찬 모습으로 목욕과 옷을 세탁하며 내일 있을 해신제를 위해 몸가짐을 청결하게 하는 등, 해신제 준비에 분주하다>

#7a. <BGM : 해신제> / 국악 연주

<영가대에는 오방색 깃발이 날린다. 통신사 일행은 모두 제단 앞으로 도열해 있고, 초헌관, 제헌관, 종헌관이 차례대로 잔을 올리고 있다. 잔을 올리는 의식이 끝나면 이어 정사가 축문을 읊는다>

[조엄] 우리는 임금의 명을 받아 국서를 들고 동쪽으로 있는 일본에 갑니다. 마련한 배가 6척이고 인원이 수백 명입니다. 바닷길이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상제님이시여 우리 통신사절단을 도와주시어 복을 내려 주십시오. 천문을 보고 날짜를 가려 정하고 몸과 정신을 맑게 하고 청수와 술을 마련하여 하늘의 기운을 깨끗하고 향기롭게 하오니 우리의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7b. <BGM : 해신제> / 국악 연주

<축문을 모두 읊은 정사가 정성스럽게 제단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하니 모든 통신사절단 일행이 따라 절을 한다. 해신제는 무희들의 춤을 위주로 하는 무대가 계속 이어지고 백성들과 통신사 일행이 함께 음복하며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며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나와 잔치를 즐긴다>

#8장 첩자의 음해와 출항, 동래성

<첩자가 배의 여러 부분을 계속해서 망가트리던 중 야간 순시 중인 정사 일행이 오자 황급히 몸을 숨긴다. 반대쪽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바닷가의 야경에 감탄하며 홍도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조엄] (배의 파손된 부분을 가리키며) 아니 여기 이 부분이 왜? 이러한가?

[병사] 글쎄요…. 조금 전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당황하며 부서진 부분 살핌)

[조엄] (배의 파손된 부분들 이리저리 가리키며 격앙된 어조로)
이것 보게나, 이 부분도 그렇고 요부분도 그렇고….
(의심스러운 듯) 누군가가 우리의 행렬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어서 당장 수상한 자를 색출하고 국서의 경계도 더 강화하라!

[병사] 예! 나으리!

<한쪽에서 홍도가 통신사절단이 타야 할 배 주위를 산책하며 야경을 스케치하고 있다. 이런 홍도에게 병사로 위장한 첩자가 다가가 홍도를 포박하고 그는 영문도 모른 채로 정사 앞에 힘없이 끌려온다>

[병사/첩자] (정사 앞에 홍도의 무릎을 꿇게 하며) 여기 이놈입니다! 나으리!

저희 병사들 외에 밤에 돌아다니던 놈은 이놈밖에는 없었습니다.

[조엄] (노발대발) 네 이놈! 감히 그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길 바라는가?

[홍도] (억울한 듯이) 아닙니다!
정사 나으리 저는 단지 그림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야경이 너무 멋있어서 그림에 담고 있었습니다.

[병사/첩자] (홍도를 윽박지른다) 이놈이!
밤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솔직하게 고하라!

[조엄] 저놈이 바른 소리를 할 때까지 매우 쳐라!

[홍도] (다급한 목소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사 나으리! 저는 도화서의 화원입니다. 또한, 강세황 선생님의 문하생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은 그림 그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때 홍도가 한 발짝 나가서 통신사선발 때 부르던 노래를 한 소절 부른다>

#M4. <나는 그림쟁이 : 솔로> / 김홍도

[홍도] **나는야 조선의 그림쟁이**
나는야 최고의 그림쟁이
나는 행복해 붓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지

[조엄] (노래를 멈추게 하며) 그만! 널 기억한다. 그리고 한양에서부터 네 이야기는 이미 들었느니라. 이 녀석은 아니다. 어서 풀어주고 일단 목수들과 함께 서둘러 배를 수선하라! 또한, 추후라도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느니 경계를 더더욱 단단히 하라!

[격군들] 예! (대답과 동시에 병사들은 분주히 배를 수선한다)

<아침이 밝았다. 항구에는 통신사절단의 출항을 보기 위해 많은 군중이 모였고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린다>

[조엄] 자! 통신사절단이여! 출항의 북을 더더욱 세게 울려라! 출항이다!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지휘봉을 높게 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제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살아도 나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이다!

<출항을 알리는 북소리와 함성에 이어 나팔도 따라 울리고 와~~와~~와~~ 군중의 함성도 함께 울린다. 사절단 역시 군중의 환호에 감동하며 여기저기 군중에게 손을 들어 화답한다>

#8a. <BGM : 북과 나팔소리> / 북, 나팔과 국악

#9장 풍랑속에 사절단, 대한해협

#9. <BGM : 풍랑과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아수라장 소리>

<높은 파고로 일행은 힘들어하며 공포감을 느낀다. 일부 선원들은 구토와 돛의 줄을 잡고 있고, 선상에 차오르는 바닷물을 배 밖으로 퍼 나르기에 경황이 없다>

[격군1] 풍속이 이리저리…….
(여러 돛을 만지며 확인)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격군2] 부관 나으리! 유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당황한 기색)

[격군1] 배를 우로 돌려라~~ 아니다~ 배를 다시 좌로 돌려라!

[격군2] 각자 맡은 자리를 사수하라!

[동수] (독백 - 아! 바닷길의 유속이 이리도 험하였던가)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격군이 돛을 잡고 버티는 것을 같이 이동하며 도와준다)
모두 돛을 잡고 노를 저어라!

[격군] (한목소리로) 예!

<파고와 풍랑은 더 심해지며 아수라장 배 안의 일행은 온 힘을 다하여 서로 도우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M9. <풍랑이 불면 언젠가는 멈출 것 : 솔로. 코러스> / 백동수

[백동수] **풍랑이 일면 언젠가는 멈출 것을**
천둥이 치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우리는 조선의 통신사 무서운 것 없다
우리는 평화의 사절단 거칠 것 없다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어떠한 태풍과 파도도
하나의 물결일 뿐인 것을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아무리 힘에 겨워도 하나가 되어 나갈 뿐

우리의 희생과 노력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노를 저어라
명예와 충의는 하늘도 감동할 것을
하늘이 우리 통신사와 함께 하신다
상제님이시여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하늘이시여 우리의 사절단을 살펴 주시옵소서
조상님이시여 우리의 사절단을 이끌어 주옵소서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파도는 잠잠해졌지만 어려운 항해 속에 통신사 일행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이때 한 격군이 멀리서 육지를 발견하고 소리 내어 외친다>

[격군1] 보인다! 저기 육지가 보인다!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북소리도 같이)

[격군2] 정사 나으리! 드디어 첫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격군1은 연신 보인다 육지다!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외치며 다닌다>

[격군 전체] 육지다! 육지다! (배 안에는 육지라는 함성이 메아리처럼 외쳐진다)

[부관] 정사 나으리! 드디어 대마도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정사] 하늘이 우리 통신사를 버리지 않으셨다!

[부관] 자! 서둘러 노를 저어라! 거의 다 왔다 북을 더 크게 울려라!

[모두] 육지다! 육지다!

<배 안에는 육지라는 함성으로 가득 차고 배는 곧 대마도의 사스나항구에 무사히 입항한다. 항구에는 대마도 번주를 비롯한 많은 대마도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환영의 인파로 가득하다>

#10장 고구마 종자, 대마도

#10a. <BGM : 대마도주의 환영 음악> / 오케스트라

<어려운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대마도에 안착한 통신사 일행을 대마도주와 농민들이 반갑게 맞는다>

[대마도주]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희 섬사람들도 배를 자주 타지만 쓰시마 해협은 유속을 알 수 없어 잘 다니지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조엄] 과찬이십니다. 뱃멀미가 힘들긴 했지만, 하늘도 우리 통신사의 큰 뜻을 굽어살피셨기에 잘 지나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마도주] 다행입니다. 어서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여봐라! 통신사 일행을 숙소로 안내하라!

[일본 수행원] 예! 도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통신사 일행은 고단한 몸이지만 대마도에 안착함을 기뻐하며 숙소로 이동한다>

#10b. <BGM : 우리는 통신사> / 전체 코러스

<통신사의 구음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일본인들이 무엇인가 맛있게 먹고 있는 음식을 보고 정사는 일행을 황급히 멈춘다>

[조엄] 멈추어라! (행렬이 멈추고 정사는 가마에서 내린다)

(신기한 듯 바라보며) 이들이 먹고 있는 음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마도주] 고코이모라 하옵니다. 효를 행하는 뿌리라는 뜻이지요.

[조엄] 꼭 감자 같이 생겼습니다. 맛은 어떠할까?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대마도주] 물론입니다. 어서 고코이모를 정사께 대령하라!

<대마도주의 말과 동시에 고코이모를 먹던 일본 농부들이 고코이모를 바로 대마도주와 정사 조엄에게 올린다>

[조엄] (반입 정도 맛을 보며) 아! 굉장히 달고 맛있군….
배에 포만감도 있고 맛있구나! 맛있어!
(한입 더 먹으며, 독백 - 이것이 말로만 듣던 고구마라는 것이야….
조선에도 이것을 재배한다면 백성들의 먹거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대마도주, 이 고코이모의 종자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대마도주] 물론입니다. 물이 없어도 잘 자라며 영양도 풍부하고 맛 또한 달아 말 그대로 효행뿌리입니다. 돌아오시는 길에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종자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조엄] (조급한 듯이) 아니오,
대마도주! 어차피 주실 거 지금 당장 조선에 보내야겠습니다.

[대마도주] (놀라는 표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시키겠습니다.
조선에 고코이모가 잘 자라 모든 백성이 잘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행원을 보며) 어서 고코이모의 종자를 준비해 드리거라!

[수행원들] 예! 도주님
(두 부대에 고구마 종자를 황급히 담아 부관에게 전달한다)

[조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대마도주에게 인사하자마자 부관에게 지시한다)
종자를 가능한 한 빨리 조선으로 보내 재배 방법을 찾아라!

[동수] 네! 분부 받들겠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종자가 담긴 포대를 조심히 옮긴다)

[조엄] 그렇구나! 효행뿌리라.. 고코이모!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통신사절단으로 온 보람이 있어 좋구나! 자! 계속 이동한다!

[동수] 출발!

<다음 기수단에도 이동 구호가 전달되어 기수단이 차례로 외치며 이동한다>

[통신사일행] (용의 기수) 출발!.....(군악 기수) 출발!.....(정사 기수) 출발!.....
(부사 기수) 출발!.

#M10. <울퉁불퉁 고구마 : 솔로, 코러스> / 대마도주, 도민들

[대마도주] **울퉁불퉁 고구마 울퉁불퉁 고구마**
[도민들] **너와 내가 한입 두입 효행 뿌리라네**
[대마도주] **울퉁불퉁 고구마 울퉁불퉁 고구마**
[도민들] **너와 내가 효도하는 고코이모라네**
[대마도주] **울퉁불퉁 너와 내가 고코이모 한입 두입**
[도민들] **너와 내가 효도하는 고코이모라네**
[대마도주] **울퉁불퉁 굽고 찌고 고코이모 단맛 꿀맛**
[도민들] **울퉁불퉁 우리 모두 고코이모 한입 두입**
[대마도주] **울퉁불퉁 효행뿌리 고코이모 고코이모**
[도민들] **울퉁불퉁 고코이모 울퉁불퉁 고코이모**
[대마도주] **삼월이면 씨를 뿌려 오월이면 순이나고**
[도민들] **칠월이면 줄기먹고 구월이면 뱃속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마도주] **불에구운 군고구마 물로찌는 물고구마**
[도민들] **맛이 달아 꿀고구마 그냥먹어 날고구마**
얼씨구! 스고이! 좋다! 스고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마도주,도민들] **울퉁불퉁 고구마 울퉁불퉁 고구마**
너와 내가 한입 두입 효행뿌리라네

<무대는 고구마와 고구마 종자부대를 들고 있는 통신사 일행과 대마도 주민들에 의해 흥에 겹다. 정사는 고구마가 조선 백성의 기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설레고 통신사 일행은 고구마송을 따라 부르며 대마도민들의 환대 속에 계속 이동한다>

<대마도에 도착한 일행은 대한해협을 건너온 피로를 풀고 이즈하라항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일본 본토의 관문인 아이노시마섬을 지나 시모노세키로의 항해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늦은 밤, 통신사 일행을 방해하려고 같이 온 첩자는 고구마 종자를 보관한 포대를 훔치려 창고를 기웃거리다 경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고구마 종자를 훔쳐 달아난다>

[첩자] (독백 - 백성이 배부르다면 분명히 위정자들을 더더욱 우습게 볼 것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 그냥 곡식만 먹으면 되지 무슨 고구마야 또, 고구마 재배가 성공하면 공들이 모두 통신사에게 돌아가는 것일 뿐!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해! (종자 부대를 들고 도주)

[격군] (좌우로 큰소리) 종자부대가 없어졌다! 어서 종자부대를 찾아라! (멀리 있는 쪽에서 움직임을 포착) 저기다! 복면 쓴 놈을 잡아라!

<숨었을 때 무관들이 지나가고 다시 첩자가 이동 후 숨었을 때 무관들의 추격전이 이루어진다. 한 번 더 첩자가 이동 후 숨었을 때 무관들이 추격하기를 되풀이하던 중 마침 야경을 그리러 나온 홍도와 첩자가 서로 맞닥트려 부딪친다>

[홍도] 아이쿠! (넘어졌다 일어나며) 죄송합니다!

[첩자] (넘어졌다 일어나며 비틀거린다) (독백 - 분하다! 또 저놈이군!)

<첩자는 넘어진 충격에 고구마 종자 부대를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도주한다. 첩자를 쫓던 무관과 격군들은 홍도가 넘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일의 경과를 파악한다>

[동수] 홍도야! 네가 종자를 지켰구나!
(애원하듯이) 단, 정사 나리가 아시면 우리가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경을 칠 것이니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홍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네? 제가 뭘 했나요?
(활기찬 표정으로 붓을 돌리며 퇴장)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무관들이 포대 안의 종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종자 포대를 끌어안고 안심하지만, 부관은 단순한 절도가 아닐 것이라 의심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재확인한다>

#11장 홍도와 사라쿠 남매 만남, 시모노세키

#11a. <BGM : 북, 나팔, 환영 행렬의 함성>

<사절단 일행은 수백 척 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시모노세키에 다다르고 역시나 항구에서 환영 행렬과 북소리로 항구는 축제 분위기이다. 하지만, 환대에는 관심 없는 홍도는 통신사 행렬에서 먼저 빠져나와 시모노세키의 장터와 번화가를 거닌다>

#11b. <BGM : 시장의 북적거림>

[홍도] (감탄하며 주변을 계속 두리번) 와! 이 깨끗한 거리를 봐 건물들과 집들도 마치 자로 잰 듯 가지런하게 지었네. 저건 벼루인데…….
(자세히 벼루를 들여다보며) 빛깔이 참으로 멋있구나!

[일본상인] (벼루를 들어 보이며) 이 벼루는 문자산성에서 나는 돌로 만든 최고의 벼루이오. 이 투박하면서도 세련된 색을 보시오.
싸게 드릴 테니 하나 사시겠소?

[홍도] (한숨을 쉬며) 그러고는 싶지만 저는 통신사 일행으로 온 사람이라 아무것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사절단은 절대 개인적으로 무엇을 구매해 갈 수 없습니다.
(한숨을 쉰다) 벼루가 너무 탐나지만, 국법을 어길 수는 없지요….

[일본상인] 그런 나랏법이 있었구먼. 그럼 별수 없지.
(벼루를 앞으로 더 가까이 들이밀며) 눈으로라도 많이 담아가시오!

[홍도] (벼루를 더 자세히 찬찬히 보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걷던 홍도는 극장에 여러 사람이 줄지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궁금한 나머지 군중들을 따라 들어간다. 네 명의 가부키 배우가 얼굴에 분을 잔뜩 칠하고 한참 열연 중이다>

#11c. <가부키의 노래 : 솔로, 코러스> / 가부키 배우1, 배우들

[가부키 배우1] **이보다 더 화려한 분장은 없어**
새 하얀 분장위에 인생을 담지
[배우들] **빨간선 착한역, 검정선 악한역**
요괴는 갈색선, 다혈질 많은 선

[배우들] **화려함 속에 아픔 있지만**
아픔도 예술로 승화시켜
[가부키배우1]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가무기 가무기라네
[가부키배우1] **이보다 더 재밌는 공연은 없어**
현란한 의상 안에 재미를 담지
[배우들] **가가가 노래가 부부부 춤출무**
끼끼끼 재주기 가부끼 가무기
[가부키배우1] **화려함 속에 고생 있지만**
고생도 우리의 숙명인걸
[배우들] **대를 이어 배우가 되는 것도 우리의 자랑이라네**

[홍도] (독백 - 이것이 가부키라는 일본의 전통 공연이군…. 역시나 듣던 대로 일본인들의 특유한 의상, 특징적인 연기와 그에 맞는 화려한 분장법…. 멋지다 멋져…. 명칭처럼 노래, 춤, 재주의 삼수가 잘 어울리는군)

<가부키 공연을 한참 즐기던 홍도는 자기 또래의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남매를 보게 되고 궁금한 나머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매들이 있는 쪽으로 향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홍도는 그림을 보며 그림이 있는 쪽으로 더 가깝게 다가간다>

[홍도] (신기한 듯이) 안녕! 난 조선에서 온 김홍도라고 해!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사라쿠남매] (관심 없는 듯 그리는 것에 집중한다)…….

[홍도] (무안해하며 재차 언성을 높인다) 난 조선에서 온 김홍도라고 해!

[사라쿠남매] (남매는 홍도의 인사를 듣지 못한 듯 계속 그림에 치중한다)

[홍도] (언성을 더 높이며) 난 조선에서 온…….

[사라쿠] (손가락으로 본인의 입을 막고 “쉿” 흉내)
쉬~~잇! 지금 그림 그리고 있잖아….

[구미코] (말없이 먹을 갈고 있다)…….

[홍도] 아! 미안…….
(홍도는 말없이 남매가 그림 그리는 것이 끝나길 기다린다)

<사라쿠 남매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홍도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야 두 남매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리한다>

[사라쿠] (일어나서 옷을 털며 짐 정리) 휴…. 이제야 끝났네!

[구미코] (그림을 들어서 보며) 역시 오빠의 그림은 멋져! 배우들의 특성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

[사라쿠] 그래? 내 동생한테 칭찬받으니 좋구나!
(자신감으로 웃으며) 하, 하, 하
옆에서 먹을 갈아주니 그림이 자연스레 술술 그려지는데!

[구미코] (기뻐하며) 진짜! 난 오빠 옆에서 먹 갈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사라쿠] (맞장구) 난 구미코가 먹을 갈아 줄 때가 가장 행복해!

[홍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 독백 - 놀고들 있네….)

[사라고] 아 참! 넌 누구니? 조선에서 왔다고?

[구미코] 조선에서 통신사절단이 온다고 들었는데…….
너도 사절단의 일행 중 하나구나?

[홍도] 이제야 날 알아보는군. 난 조선의 도화서에 있는 19세의 화원이지.

#M4. <나는 그림쟁이 : 솔로> / 김홍도

[김홍도] **나는야 조선의 그림쟁이**
나는야 최고의 그림쟁이
나는 행복해 붓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붓으로 모두 털어버려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붓으로 모두 털어버려

[구미코] 치! 자기만 그림 그리는 줄 알아? 우리 오빠가 최고의 그림쟁이거든!

[홍도] 뭐야? 그럼 그림 시합이라도 한번 해볼까?

[구미코] (자신 있게 나선다) 해보나 마나지!

[사라쿠] (홍도와 구미코의 다툼을 저지하며) 둘 다 그만해!
(반갑게 손을 내밀며) 그림을 그린다니 반갑구나, 김홍도라고?

정식으로 인사할게. 나는 19세, 이름은 도슈샤이 사라쿠야.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싶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지.
(장난섞인 어조) 네 앞의 이 말괄량이는…
내 동생 구미코라고 하고 이제 17세인가? 16세인가?

[구미코] (사라쿠의 입을 막으며) 그만 여자의 나이는 비밀이라고!
그리고 말괄량이가 뭐야 치… (쑥스러운 듯 뒤로 숨는다)

[홍도] 말괄량이 맞아 보이네 뭐!
(고소하다는 듯이 큰소리로 웃는다) 하하하하~

[구미코] (화를 내려다 이내 참으며) 뭐? 이쁜 내가 참아야지…

[사라쿠] 우린 동갑이니 앞으로 편하게 지내자!

[홍도] 그래,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린 깐부다!

[사라쿠남매] (동시에 의아한 듯) 깐부?

[홍도] 같은 편! 친구란 뜻이야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이야기하는 거야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깐부!

[사라쿠남매] 아! 겐뻬이! (홍도를 따라 사라쿠 남매도 손가락을 함께 건다)

<세 사람은 크게 웃으며 손가락을 걸고 함께 춤을 추며 빙빙 돈다>

[사라쿠] (빙빙 도는 것을 멈추며) 그럼 통신사는 어디까지 가는 거니?

[홍도] 에도까지 가는 거야 너희네 쇼군이 산다는 에도성에....

[사라쿠] 진짜? 나도 가보고 싶은 곳인데…. (기가 죽어 홍도가 부러운 듯이)

[구미코] (간절하게) 오빠 우리도 에도성에 한 번 가봐요.

[사라쿠] (우물쭈물)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우린 형편이 안되어서

[홍도] 그래 그럼 내가 정사 나리께 잘 아뢰어서 함께 갈 수 있게 해줄까?

[구미코] (기쁜 나머지 홍도의 손을 버럭 잡으며) 정말?

[홍도] 봐, 말괄량이 맞네 하하하

[구미코] (쑥스러워하며 사라쿠 뒤로 숨는다)

[사라쿠] 정사 나리가 우리도 같이 에도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까?

[홍도] 음…. 쉽진 않겠지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지.
(재미있는 웃음) 대신 내가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 두 소절만 외워야 한다.

[사라쿠] 진짜?

[사라쿠] (남매는 뛸 듯이 좋아하며) 에도까지 갈 수 있다면 그까짓 거 두 소절이 문제일까?

[구미코] 난 백 소절도 외울 수 있겠다!
(신이 나며) 그렇지? 오빠?

[사라쿠] 그럼 그럼 홍도야, 얼른 가르쳐 주기나 해!

[홍도] 아라쓰무니다!

<세 사람은 키득 키득 웃으며 홍도의 지시대로 노래를 한 소절씩 배우고 있다. 이날 늦은 밤, 정사가 머무는 숙소에는 고향 땅을 떠나온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난 탓에 정사가 사무치는 향수를 붓글씨를 쓰며 달래고 있고 조금 떨어진 밖에서는 홍도가 비파를 들고 연주하고 있다>

#11d. <한오백년 : 연주> / 클래식 기타

[조엄] 밖에 누구 있느냐?

[동수] 예! 정사 나리!

[조엄] 이 음악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동수] 네! 즉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엄] 아니다! 내 적적하던 참인데…. 직접 가보고 싶구나! 앞장서거라!

[동수] 예! 나으리! (악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앞장서서 나간다)

[홍도] (정사가 오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더 열정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사라쿠 남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다) 아무렴~~ 그렇지이~~ 그렇~고~ 마알~고~~ 한오백년 살자는데에~에~ 웬 성화냐~~

[사라쿠남매] (홍도를 따라 부른다) 한오백년 살자는데~에~ 웬성화냐~~

[조엄] 타국에서 우리의 민요를 듣다니 반갑구나!

[홍도] (놀라는 척 악기를 멈추고 일어난다) 나으리,
이 늦은 밤에 어인 일이신지요?

[사라쿠남매] (놀라며 함께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공손히 서 있다)

[조엄] 누가 이리 악기를 구슬프게 잘하는고?

[홍도] 정사 나으리, 부끄럽사옵니다.

[조엄] (홍도의 얼굴을 보고) 아니,
너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홍도란 아이 아니더냐?

[홍도] 맞사옵니다.

[조엄] 악기도 제법이구나! 일단, 계속해 보아라.

[홍도] 그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렴~~ 그렇~지~이~ 그렇~고 마알~고~~
한오백년 살자는데에 웬 성화요~

[조엄[(한 소절 듣던 정사도 따라 부른다)
아무렴~~ 그렇~지~이~ 그렇~고 마알~고~~
(문득 정사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노래를 멈춘다)
잠깐! 이 두 아이는 누구냐? 발음이 약간 다른데?

[홍도] 여기에서 만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옵니다. 조선의 문화에 관심이 많아 조선의 민요를 하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조엄] 오호라, 여기 아이들이구나 그럼 이쪽 노래도 함 들어 봐야겠구나.

[홍도] 물론입니다. 단! 정사 나리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조엄] 부탁? 부탁이 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 아이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 보고…….

[홍도] 아니 되옵니다. 먼저 부탁을 들어주셔야….

[동수] (칼집으로 위협하며) 무례하구나!

[조엄] (동수를 향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이냐! 맹랑한 아이로구나.

좋다! 부탁이 무엇인지 들어나 보자…….

[홍도] 나으리 이들은 사라쿠 남매이옵니다.
에도까지 갈 형편이 안되어서….
(애절하게) 우리 일행이 함께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엄] (황당한 듯이) 뭐라?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전하의 국서를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이동 중인 것을 잊었느냐?

[사라쿠] (한발 나서서) 저희가 가마도 지고 빨래도 하겠고 짐도 나르고 가끔 어른들 어깨도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조엄] 그래도 불가하다!

[홍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정사 나으리!

<이때 부관이 홍도를 알아차리고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도둑을 잡게 도와주고도 정사가 모르게 묵인해 준 것이 고마워 홍도를 거들기로 마음먹는다>

[동수] (독백 - 고구마 종자도둑을 잡게 해준 친구군….)
(각오한 듯이) 정사 나으리 한 번 생각해 보실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행에게 방해가 될 아이들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허드렛일이라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사가 고민 중일 때 사라쿠 남매가 일본어로 한오백년 한 소절을 노래한다>

[사라쿠 남매] いえいえ(이에이에~) そうです(소오 데쓰으 쏘오데스 데쓰으으)
500年 (고샤크네엔) 生きていきましょう(이키테 이키 마쇼요)
なぜでしょうか(나제데쇼요카) 煩わしい (와쯔라와시~~)

[조엄] (흥이 나서 허벅지를 치며) 얼씨구! 좋다!.
좋다! 함께 가자! 대신 가는 동안 어른들의 일거리들을 돕거라!

[홍도,남매] 감사합니다! 정사 나으리!
(세 사람은 손가락을 걸고 빙빙 돌며 춤춘다)

<통신사 일행이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일행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고향을 그리며 한 오백 년을 함께 부른다>

#M11. <한오백년 : 삼중창, 코러스> 정사/ 동수/ 홍도/ 통신사 일행

[동수]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
정든님을 두고가니 눈물 난다
[코러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홍도] **아리랑 고개에다 처마 집을 짓고**
그리운 우리 님을 기다리세
[코러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조엄] **꽃답던 이내 청춘 절로 늙어**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서 뜻 붙일꼬
[코러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코러스] **산중에 자규는 왜 우는가**
고향 산천을 그리는 마음 어떨라구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12장 일본학자에게 음양오행설 소개, 가마가리(히로시마)

<아침! 씩씩한 노랫소리로 출발한다. 화면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지도와 일정을 보여준다.>

#12. <BGM : 우리는 통신사, 코러스 > / 통신사 일행

<평소 조선의 음양오행설에 관심이 많던 일본학자는 정사에게 궁금한 것들을 묻고 정사가 성실하게 답하는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다. 밖에서는 이들의 대화를 첩자가 엿듣고 있다>

[일본학자] 음양오행설이 무엇입니까?

[조엄] 세상에는 태양과 달이라는 음, 양 그리고, 불, 물, 나무, 쇠, 흙의 다섯 가지 오행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날의 이름과 같지요.

[일본학자] (고개를 갸우뚱) 음? 양? 오행?

[조엄] (살짝 웃으며) 음은 여성이나 찬 기운을 가진 것으로 대표되고 양은 남성이나 따듯한 기운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불, 물, 나무, 쇠, 흙 이렇게 다섯 가지로써 특히 토...
그러니까 흙의 기운을 거쳐 서로 다른 기운이 운행되는 이치입니다.

[일본학자]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치며) 아! 정말 신기한 이치입니다.
(앞에 있던 물잔을 급히 들이키며) 자!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엄]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자연의 섭리와 나아가 우주의 섭리까지 담고 있습니다.

[일본학자] 허……. 허……. 정말 신기합니다. 그럼 여자와 남자, 동양과 서양 밤과 낮, 물과 불 등 세상의 이치가 나뉘는군요

[조엄] 그뿐이요, 심장은 뜨거우니 화, 즉 불의 기운이라 차가운 기운인 금의 기운이…. 그러니까 금의 기운인 폐가 밖의 차가운 공기를 몸 안으로 들여와서 화의 기운인 심장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심장이 뜨거워져서 터져버릴 것입니다. 하하하하

[일본학자] (연신 물잔을 들이키며) 오호라!
그럼 수의 기운은 오줌보인 방광이 되겠군요.

[조엄] 맞소! 금방 배우셨소

[일본학자] 토는…. 그럼 오장 중 가운데에 있는 위인가? 토……. 그러니까 흙의 기운을 거쳐서 무엇인가 된다고 했으니 위가 아닙니까?
음식물이 위를 통해 영양분이 되던 장으로 지나 배설물이 되기도 하고요.

[조엄] 맞소! 맞소! 이렇게 음양과 오행은 우리 삶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일 년이 있지만, 우주에도 일 년이 있는 것은 아시오?

[일본학자] 우주에도 한해가 있습니까?

[조엄] 당연하지요. 우주의 일 년은 129,600년이요.

[일본학자] 헉!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힌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조엄] 하하하 단번에 다 알 수는 없으나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간, 일, 월 등을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학자] 참으로 대단합니다. 차를 한잔 드시고 계속하시지요.
(잔을 들어 건배하며 차를 마실 때 부관이 아뢴다)

[동수] 정사 나으리, 밤이 늦었사옵니다. 침소에 드시지요.

[조엄] 알았네, 부관도 그만 주무시게,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본학자]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조엄] 별말씀을요, 우리와 사는 세상과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일본학자는 좋은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흡족한 마음으로 끄덕거리며 퇴장한다>

[첩자] (투덜거리며, 독백 - 무슨 음양오행이야,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돈 벌어서 사고 싶은 것 사고 먹고 싶은 것 사서 편안하게 먹고 살면 되지……. 음양오행? 이치? 그까짓 거 알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괜히 시간만 낭비했잖아….)

<통신사 일행을 감시하다 방해하려던 것을 찾지 못한 첩자가 투덜거리며 퇴장하고 음양의 이치와 오행을 설명들은 일본인 학자는 손으로 이곳 저것 배운 것을 응용하며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며 손뼉을 치기도 한다>

#13장 성주의 환영식과 스모 소개, 오사카

<통신사 일행은 다시 배로 이동한다. 다행히 일본 내륙에 속한 바다라 풍랑이 잔잔했고 이제는 노를 젓는 데도 적응이 많이 된듯하다. 무엇보다 수백 척의 일본 배들이 호위해주고 끌어주니 항해가 한결 낫다. 일행은 어느덧 오사카항에 도착하여 닻을 내린다>

#13a. <BGM : 출항할 때 음악을 사용> / 북, 나팔, 국악

<통신사 일행이 오사카항에 내리자마자 홍도는 사라쿠 남매와 시내 번화가를 찾아 나선다. 장터에 여러 군중이 모여 역사들이 한참 시합 중인 스모를 구경하고 있다>

[홍도] (독백 - 이것이 일본의 씨름이군)

[사라쿠] (신나서 격앙된 어조로) 스모라고 불리는 일본의 전통 놀이지!
두 역사가 모래판 밖으로 사정없이 서로를 밀쳐 낼때에 박진감이 넘치고!
(스모의 자세를 신나게 묘사하며 행동으로 보여준다) 도 효 이 리 !
씨름의식인데 경기 전 예를 갖추는 동작이야. 그리고…….
(자세를 취하며) 시코와 뎃포! 스모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동작이지.
(자세를 취하며) 시키리시간! 상대 선수와 맞붙을 자세를 준비.
자~자~자~

(뜸들이다 다시 자세를 취하며) 기마리테!
기마리테! 승부수를 거는 동작이야!
(경기를 다시 보며) 와~! 정말 멋진 경기네!

[사라쿠남매] (신나서 두 팔을 벌려 응원 중) 힘내라! 힘내라!

#13M. <스모의 노래 : 솔로. 코러스> / 스모선수1. 스모선수들

[스모선수1] **이건 살이 아니야! 우리의 힘이지!**
[선수들] **우리는 거의 벗고 힘을 겨루지만**
[스모선수1] **그만큼 허물없는 힘자랑이지!**
[선수들] **모든 힘 다 보여주는 최고의 도전**
[스모선수1] **스모는 예를 갖춘 놀이라네**
[선수들] **이기든 지든 감정을 나타내지 않아**
[스모선수1] **양발을 좌우로 양다리를 높게 올려 시선을 제압하는**
[선수들] **시코!**
[스모선수1] **손바닥으로 빠르고 강하게 상대를 떠미는**
[선수들] **뎃포!**
[스모선수1] **상대와 힘을 겨루기 전에 느끼는 긴장감**
[선수들] **시키리 시간!**
[스모선수1] **드디어 나아간다! 승부수 던지는**
[선수들] **기마리테!**
[선수들] **착! 착! 착! 우! 우! 착! 착! 착! 우! 우!**
[스모선수1] **스모는 백성의 즐거움**
[스모선수들] **스모는 모두의 즐거움**
[스모선수들] **착! 착! 착! 우! 우! 착! 착! 착! 우! 우!**

[홍도] (손으로 눈을 약간 가리며, 독백 - 재밌긴 한데 거구의 역사들이 속옷 같은 것만 입고 있으니 많이 민망하네….)

[구미코] (홍도를 가리키며) 오빠! 홍도 좀 봐봐 무서운가 봐 하하하~

[사라쿠] 그래? 스모를 처음 보니 그럴 수도 있지 하하하~

[홍도] (눈을 가린 손을 내리며 당황한 기색으로) 안 무섭거든.

[구미코] (놀리듯이) 너 사내 맞니? 하하하....

[홍도] (발끈하며) 안 무섭다니까!

[사라쿠] 그만, 그만 이제 다른 곳도 구경하러 가야지. 어서 가자!

<사라쿠 남매는 홍도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세 사람은 화려한 야경과 정교한 건물에 넋을 잃은 채 시내 여러 곳을 발길 닿는 대로 구경한다. 특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일본인들이 눈에 띈다>

[사라쿠] (손으로 무언가 재듯이)
건물들이 꼭 자로 잰 듯이 똑바르게 서 있네!

[구미코] (사람들을 가리키며) 사람들 옷 입은 것 좀 봐!

알록달록 꼭 무지개가 걸어가는 것 같네!

[사라쿠] 이런 화려한 색을 사용하면 그림도 화려해지겠는걸…….

[구미코] 맞다! 맞아! 화려한 색의 그림이라…. 생각만 해도 멋지다!

<세 사람은 오사카의 화려함과 규모에 네 시 나간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불꽃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한 발의 폭죽 소리에 문득 정신을 차린다>

#13b. <BGM : 불꽃놀이 폭죽소리> / 음향

[홍도] 이런! 늦었네! 벌써 돌아갈 시간이다. 그만, 오사카성으로 돌아가자 오사카성에서 통신사절단을 위한 연회가 있으니 빨리 가서 구경 하자구.

[사라쿠]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배고파!

[홍도,구미코] (사라쿠와 같은 시늉으로) 아이고! 배고파!

[홍도,남매] (함께 웃으며 퇴장) 하하하하.....

<오사카성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성주가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있다>

#13c. <BGM : 연회장의 북적스러움> / 일본 전통악기

[성주] 자! 여러분 먼 길을 오신 통신사 일행의 노고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소만 오늘만큼은 마음껏 드시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조엄]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하의 부엌이라 불릴 만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천하의 부엌!

[성주] 그런가요? 맘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천천히 많이들 즐기십시오. 이곳 오사카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조엄] 성주께서 이렇게 피로연을 성대하게 베풀어 주시니 그동안 피곤이 모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차려진 음식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천하의 요리는 모두 여기에 차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천하의 부엌이 맞습니다.

[성주] (자랑스러운 듯이) 우리는 손님에 대한 예의로 한번 쓴 식기는 바로 버리고 새로운 식기를 사용하지요. 우리가 통신사 일행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랍니다.

[조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주] 며칠 푹 쉬시고 여독을 푸십시오. 여기부터는 조선의 배는 정박시켜 놓고 우리의 배로 강을 거슬러 교토까지 올라가니 이동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조엄] 성주의 배려에 조선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주] 아닙니다. 그냥 통신사 일행이 편안하게 무사히 에도성에 도착하여 양국의 국서를 교환한다고 생각하니 기쁠 뿐입니다. 지금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전쟁이 없으니 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잔을 들며) 자, 자, 많이들 드시고 힘내서 에도까지 아무 탈 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하들이 서로 잔을 부딪치며) 모두 건배!

[첩자] (혼자 시무룩함, 독백 - 양국이 너무 친밀해지고 있군…. 이대로 가다간 통신사의 역할이 더욱더 돋보이게 돼. 더 친해지기 전에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겠군)

#13d. <BGM : 무관의 죽음> / 음향

<연회장은 웃음소리, 건배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무르익었지만, 첩자의 알 수 없는 모략으로 어두운 음향과 함께 긴장감이 엄습한다. 첩자는 한 일본인 무사를 돈으로 매수하여 통신사 중 한 명을 살해하라 사주한다. 돈을 받은 일본인 무사는 이에 응하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 더 늦은 밤 한쪽 구석에서 일본인 무사가 일부러 조선인 무관과 시비를 걸어 싸우다 조선인 무관을 칼로 찌르고 도망간다. 무관은 경황없이 칼에 맞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조선무관] 억울하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배를 움켜쥐고 힘없이 쓰러진다)

#14장 조선 무관 살해 사건, 오사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정사와 통신사 일행은 활발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음 여정을 위한 짐을 정리하고 있다>

[조엄] 자!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배는 정박시키고 막부에서 제공하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교토까지 이동한다! 일부 격군들은 남아 배를 지키되, 배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 모두 합심하여 짐을 이동시킨다!

<조선과 일본의 일꾼과 가마꾼들이 함께 정사의 지휘 아래 보급품들을 챙겨 싣고 짐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때 황급히 부관이 등장하여 정사에게 달려가 급보를 알린다>

[동수] (급하게) 정사 나으리!

[조엄] 아침부터 웬 호들갑이더냐?

[동수] 밤사이 최천중이라는 무관이 칼에 찔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조엄] 뭐라? 그것이 사실이냐?

<이때 한 병사가 부랴부랴 뛰어 등장하더니 부관의 귀에 손을 대고 무관의 사망을 알린다>

[동수] (목소리를 떨며) 바……. 방금
(고개를 떨구며)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합니다…….

[조엄] (바들바들 떨며) 어찌 이런 일이…….
우리의 일행이 사망하다니…….
부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조선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라 이르라!

[동수] 예! 나으리! 통신사 일행은 들어라! 지금 즉시…….

[성주] (다급히 부관의 말을 저지하며) 잠깐 진정하시오. 부관!

[동수] (성주의 저지로 말을 잊지 못하며)…….

[성주] 정사! 우리가 통신사 일행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양국의 교류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듯합니다. 일단 진정하고 앉으시지요. 시간을 주시면 내 이를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단호한 어조로) 여봐라! 당장 이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선의 무관을 살해한 범인을 잡아들이고 죄상을 낱낱이 밝히거라!

[신하들] (성주의 명을 듣자마자 많은 병력이 빠르게 흩어진다) 네! 성주님!

<정사를 포함한 통신사 일행은 비통한 표정으로 심각하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되풀이하며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곧이어 범인이 포박당해 끌려와 심문당하고 이를 통신사 일행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

[성주] (격노하며) 어찌하여 조선의 무관을 살해하였느냐?

[범인]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성주] 뭐라?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다시 묻겠다!
어찌하여 조선의 무관을 살해하였느냐? 누가 시킨 일이냐?

[범인]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성주] (노발대발) 저놈을 당장 참형에 처하라!

그리고 통신사절단은 우리의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님께 조선 영조 임금님의 국서를 전달하는 일본의 손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호위를 더더욱 신경 써야 한다!

[신하들] 예 성주님!

[성주] (애절하게) 정사! 통신사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양국의 평화적 관계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관의 희생을 아깝게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서함을 쇼군께 전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정사와 수행원들은 무관의 죽음에 실의를 잃었지만, 오사카 성주의 위로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달래며 국서를 전달하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에도를 향해 출발한다>

#15장 코무덤, 교토

<오사카로부터 요도가와강을 거슬러 교토에 거의 도착할 무렵, 정사 조엄은 갑자기 행로를 변경한다>

[조엄] 멈춰라! 길을 잠시 돌아 코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갈 것이다.

[수행원] (사전에 코무덤 쪽으로 안내하지 말라고 명을 받았기에 당황한다) 정사 나으리 갈 길이 멉니다. 그냥 가시던 길로 가시지요….

[조엄] (단호하게) 아니다! 내 꼭 둘러보고 싶은 곳이 있다 여기서 멀지 않다고 들었다. 코 무덤 쪽으로 안내하라!

[수행원] (망설이다 어쩔 수 없이 명에 따른다) 예! 나으리, 알겠사옵니다.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기수를 돌려 코 무덤으로 향하고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가마에서 내린 정사는 무덤 앞에서 큰 절을 세 번 하고 무릎을 꿇는다>

[조엄]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소리 내어 흐느끼며) 흐…. 흐…. 흐….

[동수] 여기는 풍신수길의 란 때 목숨을 잃은 우리 조상들이 코만 베어져 무덤이 된 곳이다. 코의 수가 자그마치 18만 5738개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숙연한 분위기 속) 모두! 묵념!

[통신사일행] (머리를 조아리며)…….

[조엄]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선조 조상님들이여 이제야 왔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잊고 좋은 세상에 가시기를 빌고 또 빌고 비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끝내 울음을 터트리며) 흐…. 흐…. 흐….

[통신사일행] (모두 울먹이다 단호하게)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엄] (울음을 참으며) 우리 통신사가 세상의 평화를 열겠습니다!

(마음을 추슬러)우리 통신사가 세상의 평화를 열겠습니다!
이제라도 아무 걱정 없이 넋이라도 좋은 곳으로 가소서!

<무덤 일대는 잠시 숙연해지고 새소리만 들리며 정사와 통신사 일행은 다시 마음과 옷매무시를 가다듬는다>

[조엄] 자! 이제 다시 전진이다! 전하의 국서를 일본의 쇼군께 전달한다! 자! 북을 울려라! 나팔과 꽹과리를 울려라! 통신사의 길을 열어라!

[통신사일행] (장엄한 목소리로) 예!

#15a. <BGM : 북, 나팔, 꽹과리> /국악기

<행렬은 계속 이동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눈 앞에 드넓은 비와호수가 등장한다. 그러나 비와호를 묵묵히 바라보며 호수의 규모나 절경은 상관없이 그냥 지나갈 뿐이다. 단지 비파의 모양을 닮은 호수의 바람만이 통신사 일행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하다. 이때 일행 중 부관이 앞으로 나서 선창한다>

[동수] (선창) 우리~는 통신사 우리~는 통신사

#15b. <BGM :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16장 배다리와 인간 방파제로 도하, 나고야

<기소가와 강 앞에 다다랐을 때 길잡이를 하던 일본 수행원이 배다리를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수행원] 나으리, 나고야로 가기 전 강을 몇 개 건너야 하는데 이 배다리를 이용하면 나고야로 빠르고 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말 그대로 배들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쇼군께서 통신사 일행을 극진히 모시라고 하셔서 2년의 기간 동안 7만 7천 필의 말, 33만 명의 인원이 3백 척의 배와 3,360장의 판자를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조엄] 오호라! 쇼군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이야!
일본 백성들의 따듯하고 깊은 배려에 감개무량합니다.
에도성에 도착하면 반드시 쇼군께 감사의 인사를 거듭 드리겠소!

그런데 배다리의 길이는 얼마나 되오?

[수행원] 2리하고도 반(1km) 정도 되옵니다.
또한, 통신사 일행이 돌아가고 나서는 허물어버리고 다시 해체하여 원래 배 주인들에게 배를 돌려줍지요.

[조엄] 허허~ 이거 참으로 엄청난 공이 들어간 다리입니다.
(놀라며, 독백- 2년이라…. 역시 섬이 많아서인지 배도 많고….
우린 2년 동안 무엇을 했나……. 33만 명…. 300척의 배를 연결….
우린 노론과 소론의 당파싸움에 백성이 혼란스러운데….
쇼군의 명령으로 33만 명과 7만 7천 필의 말이 동원되다니….
그것도 임시 다리를 만드는데…. 임시 다리….
그동안 조선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일행이 배다리를 건너기 전부터 첩자는 배다리 중간에서 배와 배 사이에 연결된 줄을 톱으로 열심히 끊고 있다.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미끄러져 스스로 물에 빠지지만, 일행의 도움으로 물 밖으로 나와 추워 떨고 있다>

[동수] 괜찮은가?

[병사/첩자] (젖은 옷을 털며) 네.... 나으리...

[동수] 조심해야지 어서 가서 몸을 따듯하게 하고 옷을 말려 입게나.

[병사/첩자] (부관의 따듯한 말에 감동) 네! 나으리…. (묘한 감정을 느끼며 퇴장)

<일본인들의 결속력을 생각하는 시간도 잠시 일행은 물살 센 강 앞에서 멈춘다>

[조엄] (걱정스러운 듯 강을 응시)
허허…. 이번에도 강이구먼. 물살도 엄청나게 세 보이고….

[수행원] 정사 나으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때 일본인들이 등장하여 인간 방파제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약하게 만들고 통신사 일행을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16. <BGM : 일본인들의 힘, 으라차차> / 일본어

[조엄] 정말로 감동입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강을 건넜소. 정말 감사하오! 일본 백성들의 정성과 마음이 이렇게나 깊을 줄이야….

[수행원] 별말씀을요, 양국의 평화를 위에 먼 길을 오셨는데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엄] 이렇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오. 오늘 동원된 인부들에게 시와 음식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연회에 모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행원] 시요? 기대됩니다. 저희야 좋지요! 우리는 시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에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오늘 시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저녁에 모이시오.

#17장 남명 조식의 시, 나고야

<시를 들으려는 일본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어떤 일본인들은 붓글씨를 써 달래서 받고 좋아하고 그림을 그려달라 청하기도 한다>

[동수] 자~자~ 오늘 배다리를 만들어주고 인간 방파제까지 만들어 준 일본 백성들의 환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명 조식 선생의 시를 읊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인삼차는 여러분들 몸의 부기도 빼줄 것입니다. 많이 드시고 음식도 즐기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끌벅적하던 분위기는 금방 조용해지고 부관이 글을 읽고 정사가 뜻을 해석하여 읊는다>

#17a. <BGM : 잔잔한 음악> / 대금, 오케스트라

[조엄] **차서화담운(次徐花潭韻) - 남명 조식(曺植)**

[동수]	[조엄]
秋江踈雨可垂綸(추강소우가수륜)	비 내리는 가을 강에 낚싯줄 드리 움직하고
春入山薇亦不貧(춘입산미역불빈)	봄들자 산고사리 돋아 나 가난하지 않도다
要把丹心蘇此世(요파단심소차세)	일편단심으로 이 세상 소생시키고자 하지만
誰回白日照吾身(수회백일조오신)	그 누가 밝은 해를 돌려 이내 몸 비출까?

臨溪鍊鏡光無垢(임계련경광무구)　개울에 나가 거울 닦아내니 때 없어지고
臥月吟詩興有神(와월음시흥유신)　달 아래 누워서 시를 읊조리니 흥취가 인다
待得庭梅開滿樹(대득정매개만수)　뜰의 매화나무 꽃 가득 필 때를 기다려
一枝分寄遠遊人(일지분기원유인)　한 가지 꺾어서 떠도는 사람에게 부친다

<시를 듣던 일본인들이 감탄한 나머지 모두 일어나서 함성과 박수로 감동을 대신하여 답한다. 또한,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시를 더 듣고 싶어 청한다>

[수행원]　부사 나으리 정말 멋진 시입니다.
(간곡하게) 한 수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조엄]　(으쓱한 모습으로) 그렇게나 좋아하니 한 수 더 해보겠소.

#17b. <BGM : 잔잔한 음악> / 해금, 오케스트라

[조엄]　**제황강정사(題黃江亭舍) - 조식(曺植)**

[동수]　[조엄]

路草無名死(노초무명사)　길가 풀은 이름 없이 죽어 가고
山雲恣意生(산운자의생)　산의 구름은 제 멋대로 일어난다
江流無限恨(강류무한한)　강은 무한의 한을 흘려 보내며
不與石頭爭(불여석두쟁)　돌과는 서로 다투지를 않는구나

<군중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땅을 진동시킬 정도로 열광적이며 시를 더 들고 싶어 점점 더 큰 함성을 지른다>

[수행원]　(부사에게 차를 권하며) 부사 나으리,
마지막으로 한 수만 더 부탁드립니다

[조엄]　(더더욱 으쓱한 모습으로) 허! 허! 부끄럽소.
그럼 남명 조식 선생의 시를 마지막으로 한 수 더 들려드리겠소.

#17c. <BGM : 잔잔한 음악> / 피리, 오케스트라

[조엄]　**유안음옥산동(遊安陰玉山洞)　-남명 조식(曺植)**

[동수] [조엄]

碧峯高揷水如藍(벽봉고삽수여람) 푸른 봉우리 높이 꽂혀있고 물은 쪽빛인데
多取多藏不是貪(다취다장불시탐) 많이 보고 많이 간직해도 탐내지 않노라
捫蝨何須談世事(문슬하수담세사) 이 잡고 살면서 어찌 세상 이야기해야 하나
談山談水亦多談(담산담수역다담) 산, 물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는 많아라

<군중들 좋아서 서로 얼싸안고 축제 분위기 속에 붓, 부채, 종이 등을 교환하며 시의 밤은 무르익고 한쪽에서는 첩자도 숨어서 시를 듣고 있다>

[자객] (스스로 뺨을 때리며 자해) 시는 무슨 시!
시는 너무 감성적이야! 감성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지…….
감성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할 수 없어!
하루빨리 내가 할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첩자가 도망가듯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도 점점 사라지며 조명 아웃 후, 백성들의 대화 소리만 남는다>

[일본인] 혹시 벼루는 없습니까?

[조선인] 허 허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이 딱 맞네그려.

[조선인들] (일행들 모두 웃는다) 하하하하~

[조선인] 벼루는 당신네 시모노세키에서 나는 벼루가 더 유명하다오.

[일본인] 그렇군요! 그럼 인삼 종자나 더 구합시다.

[조선인] 아무렴 드리지요. 여기 있소. 서로 돕고 살자는 것인데.

[일본인] 고맙습니다. 잘 길러서 일본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하겠소이다.

[조선인] 잘 길러서, 일본 백성들이 인삼 먹고 건강하게 살길 바랍니다.

[일본인] 감사합니다.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삽시다!

[조선인] 그럽시다. 모두 건강하게 잘 삽니다.

[조선인.일본인] (기쁘게 모두 같이) 하하하하하하하하~

#18장 후지산의 절경, 하코네

#18a. <BGM : 우리는 통신사 > / 코러스

<노래를 부르며 이동 중인 통신사행렬은 날씨가 맑아서 멀리서도 우뚝 서 보이는 후지산의 경관을 보고 멈춘다>

[수행원] 맑은 날의 후지산을 볼 수 있다니 이번 통신사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하늘이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동수] 그런가요? 산이 정말 멋집니다. 정상은 눈으로 덮어져 있고요.

[수행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산이라, 불사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사] 참으로 명산입니다. 정상에 한 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수행원] 영험한 산이라 통제가 있어 산에 오르시려면 막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릴까요?

[정사] (유쾌하게) 하하하 농담입니다. 후지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지는데 무엇 하러 고생하며 올라간단 말이오.
(유쾌하게) 하하하 아무튼 기회를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쉬워하며) 사실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두루 내려다보고 싶기는 합니다만, 빨리 국서를 쇼군께 전달해야지요. 어서 갑시다!

[수행원] 예, 예, 맞습니다!

<후지산의 광경을 보며 정사와 일본 수행원의 대화를 옆에서 듣던 첩자는 마음이 묘하게 움직이며 혼잣말을 한다>

[첩자] (독백 - 오랜 시간을 걷고 자연경관들을 마주하다 보니 마음에 묘해지는구나... 나는 왜 태어났나……. 왜 살고 있나…….
나는 왜 여기 있지……. 내가 맞게 사는 것일까…….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 머나먼 땅을 이동 중인가…)

#18b. <BGM :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첩자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있는 동안에도 통신사 일행은 계속 에도성을 향해 이동하고 일행이 에도성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무리 중에 부관이 먼저 뛰어나와 정사께 보고한다>

[동수] 정사 나으리! 드디어 에도성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조엄] (힘이 나며) 그래? 모두 고생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속히 전하의 국서를 전달한다! 풍악을 울려라!
조선통신사가 왔음을 세상에 알려라!

[통신사일행] (기쁨에 찬 목소리) 예!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는 안도의 마음으로 들떠 통신사 일행은 더 활기찬 발걸음과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에도성에 다다른다.>

#18c. <BGM :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19장 자객의 음해, 에도성

<마침내 통신사 일행은 조선을 떠나온 지 장장 150여 일 만에 에도성에 도착하고 성의 백성들은 북을 연주하며 꽃잎을 뿌리고 큰 환호성으로 환대를 받는다>

#19. <BGM : 에도성 행진곡 > / 오케스트라

[홍도] 와~ 드디어 에도에 도착했네.
(사라쿠 남매의 손을 잡으며) 어서 가자!

[사라쿠] 역시 소문대로 으리으리 하구나!
일단, 가부키 공연부터 먼저 보러 가자. 가서 그림도 그리고!

[구미코] 오빠들! 먹은 내가 갈아 줄게 나는 차분하게 앉아 먹 갈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
(신나서 가다가 갑자기 심하게 넘어지며) 어머나!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조금 아프네….

[홍도.사라쿠] (동시에 놀라며) 괜찮아?

[홍도] (빠르게 다가가 손으로 일으키며) 조심 좀 하지. 말괄량이 아가씨.

[구미코] (홍도의 손길에 쑥스러워하며) 고마워….
(쑥스러움과 아픔을 바로 잊고 주머니에서 부러진 먹을 꺼내며, 독백 - 이걸 어쩐다. 먹이 부러졌네….
뭐, 손에 좀 묻히면서 갈면 되겠지…….)

<홍도와 사라쿠 남매가 에도 시내를 구경하러 가는 동안 한쪽에서는 첩자가 독을 넣어 먹을 만들며 밤에 가할 음해에 대하여 마음을 다지고 있다>

[첩자] (먹을 훑어보며, 독백 - 드디어 내일 국서가 전달되는군.
오늘 저녁 이 독으로 만든 먹을 국서에 살짝만 발라 놓으면 나의 임무는 끝이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꼭 죄를 짓는 것 같네…. 다른 생각은 말고 독만 발라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계속 먹을 훑어보며 조심히 싸서 품에 넣는다) 드디어 내일이다.

<홍도와 사라쿠는 가부키 공연장에서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다. 바로 옆에서 구미코는 두 사람이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흐뭇해하며 열심히 먹을 갈고 있다>

[사라쿠] 역시 가부키 공연은 최고의 예술이야.
저 배우들의 분장이나 옷은 정말로 눈을 환하게 만드는 것 같아. 잘 때도 눈에 아른거려서 잠이 오질 않거든.

[홍도] 네 말을 듣고 보니 연기도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남성이 왜 여성 목소리를 내지?

[구미코] 여성은 가부키 배우를 할 수 없거든 그래서 남성이 여성 역할까지 연기해야 해….

[홍도] (장난스럽게) 오~ 먹 가는 것만 아는 줄 알았는데…. 제법이네.

[사라쿠] 구미코가 한때 꿈이 가부키 배우였거든. 그런데, 돌보고 이끌어 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꿈을 접었지만….

[홍도] 구미코!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네….

[구미코] 괜찮아, 어차피 여자는 가부키 배우가 될 수 없다네….
남성 차림으로 분장해서 몰래 공연해본 적도 있지만 결국,
들켜서 쫓겨나기도 했고….

난 지금처럼 차분하게 먹 갈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사라쿠] (환한 분위로 바꾸는 목소리로) 자~ 그럼 이번엔 다른 곳으로 구경 나가자고 뭘 그릴까? 다들 따라와~

[홍도.구미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그래! 얼른 가자!

[사라쿠] (가려다 뒤돌아 멈추며) 잠깐!
그런데 너희들 이제는 막 손잡는 사이야?

[홍도.구미코] (재빨리 손을 뿌리치며) 우리가 언제?

[홍도] (태연한 척하며) 뭐 손을 잡으면 손이 닳나?

[구미코] (아무 말 없이 땅만 쳐다보고 있다)…….

[사라쿠] 그건 아니지만 남, 녀가 유별한 것은 알지? 하하하 장난이야 장난.
난 아무것도 못 봤으니 빨리들 가자고~ 하하하.

<세 사람이 신나서 에도성의 명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구석구석 다니는 동안 날이 서서히 저물고 어둠의 장막이 시작된다. 통신사절단 일행은 거의 잠들고 어두운 숙소에 국서함을 지키는 몇 명의 무관만이 경비를 서고 있다. 첩자는 국서함에 보관되어있는 국서에 독을 묻히고자 무관들을 감시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첩자] (독백 - 정말 이것이 맞는 행동인가?)
(조심히 보초를 서고 있는 무관을 제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독백 - 만약 국서에 바른 독이 쇼군을 해친다면…….)
(국서함을 지키던 무관을 더 제압하고 국서함 앞에 다다른다)
(독백 - 이것이 국서구나….)
(국서함을 열고 국서에 준비해온 독을 바르려 한다)
(사절단에게 무슨 죄가 있나.... 이들의 안위는 누가 지킬 것인가....)
(독으로 만든 먹을 들고 국서함 앞에서 고민한다)
(독백 - 쇼군이 다치게 된다면 일행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야, 내가 맡은 임무를 마쳐야 내가 살 수 있다…. 아니야, 나 하나 살자고 수백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다….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그러다 양국이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목숨이 희생될 수도 있어…….)
(고개를 떨구며 실의에 빠진다)
(독백 - 허무하구나!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사람이나 죽이고 첩자 노릇이나 하고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구나……. 허무해…….)

<국서함을 지키는 경비 임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새로운 무관들이 등장하고 마침, 이리저리 쓰러져 있는 무관들을 발견한다>

[병사들] (급한 소리로) 첩자다! 국서함을 보호하라! 첩자가 나타났다!

[첩자] (급히 달아나다 독을 묻힌 먹을 놓친다) 내 먹! 내 먹을 잃어버렸다.
(먹을 찾느라 땅을 두리번) 먹이 어디 갔지?

[병사들] (급한 소리로) 첩자다! 국서함을 보호하라! 첩자가 나타났다!

[병사들] (첩자가 있는 방향으로 오며) 저기다! 저쪽이다!

<첩자는 급한 마음에 떨어트린 먹을 포기한 채 서둘러 도망가고 마침, 홍도와 사라쿠 남매는 밤이 늦었기에 조심스레 통신사 일행이 머무는 숙소에 들어오다 첩자를 쫓는 병사들과 마주친다>

[병사1] 너희들, 이쪽으로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못 보았느냐?

[홍도,남매] (놀라며 가슴을 움켜잡고) 네! 나으리!
아무도 마주치지 못하였습니다.

[병사들] 첩자가 나타났으니 속히 들어가서 자라!

[홍도,남매] (계속 가슴을 움켜잡고) 네! 나으리!

[병사1] 국서함은 안전하옵니다. 첩자도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동수] (큰 안도의 숨을 쉬며) 다행이구나!
(국서함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 모든 무관과 호위 병력은 밤을 새워 국서함을 지킨다. 개미 한 마리라도 못 지나가게 주위를 살피라!

[병사들] (한목소리로) 네! 나으리!

<여러 명의 무관과 병사들이 분주하게 국서함 주의를 겹겹이 감싸고 삼엄하게 호위한다>

[홍도] (투덜거리며) 어휴! 첩자는 잠도 없나?
뭐 할 게 있다고 이 시간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

[사라쿠]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 첩자 소릴 듣겠지….

[구미코] (첩자가 떨어트린 먹을 발견하고 줍는다) 오빠들 이것 봐! 먹이 떨어져 있네?

[홍도] 오! 누군가가 구미코 쓰라고 떨어뜨렸나보다 오늘 재수 좋은데.

[구미코] 그런가? 주인 찾아 줘야 하지 않을까?

[사라쿠] 이 밤에 주인을 어떻게 찾아 주니? 그것도 먹이 반이 깨져있네.

[홍도] 그래! 그냥 구미코가 써도 될 것 같아.

[구미코] 그럴까? 그럼 내일 오빠들 그림 그릴 때 열심히 갈아 줄게. 난 먹을 갈 때가 최고로 행복해!

<세 사람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퇴장하고 다시 새 아침이 밝는다>

#20장 국서함 전달과 축하공연, 에도성

<이른 아침부터 정사를 비롯한 사절단의 간부들은 에도성, 혼마루의 오히로마에서 쇼군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새로운 막부의 도쿠가와 이에하루 쇼군을 만난다>

#20a. <도쿠가와 이에하루 입장 : 덕천가강의 입장과 동일> / 오케스트라

[일본신하1] (근엄한 목소리로) 쇼군 입장하십니다.

[조엄] (고개를 숙이며) 드디어! 쇼군께 조선의 국서함을 전달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사의 수행원인 동수가 국서함을 막부신하에게 조심히 전달하고, 이어 막부신하는 도쿠가와 이에하루 쇼군에게 국서함을 공손하게 전달한다>

[이에하루] 아! 이것이 조선의 국서함이군요! 감사합니다. 이리도 먼 길을 와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국서를 읽어 보고 싶습니다.

[막부신하1] (국서함을 열어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국서를 쇼군께 전달한다)

[이에하루] (두루마리로 된 국서를 풀어 읽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참으로 멋있고 덕이 있는 글입니다. 이 쇼군도 조선과 함께 평화를 만들고 이어가자고 회답하겠소!

[정사] 감사하옵니다!

[이에하루] 통신사는 양국 백성들과 동양의 평화를 만들고 이어나가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귀한 존재이오. 사절단의 노고를 크게 축하하오! 170년 전, 내 선조이신 도쿠가와 이에야스님의 선견지명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아마 지금도 이에야스님의 신명이 이를 지켜보며 좋아 하실 것이야! 그럼 좋아하시겠지…….
자! 수천 리를 걸어온 조선통신사절단을 대접하는 잔치를 열어라! 조선통신사절단을 환영하라!

<에도성안에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하늘에는 이리저리 축하의 폭죽이 터진다>

#20b. <에도성 행진곡 : 연주> / 오케스트라, 폭죽 음향

[이에하루] (옆의 정사에게 고개를 돌려서) 내 사절단 일행에게 청이 있소.

[조엄] 청이라니요? 무엇이옵니까?

[이에하루] 내 조선의 마상재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그대들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린 지가 벌써 5개월이나 되었고요. 이 쇼군에게 마상재를 보여주실 수 있겠소.

[조엄] 그럼요! 쇼군! 당연히 보여드려야지요. 자~ 저쪽을 보십시오!

<부관의 설명에 따라 마상재의 기술들이 재주꾼들에 의해 하나씩 등장한다>

[동수] [마상재 재주꾼]

주마입마상! (말 위에서 똑바로 서는 것)

좌우칠보! (안장을 붙잡고 좌우로)

마상도립! (말머리의 좌나 우로 거꾸로 섬)

횡와! (말 안장에 횡으로 누움)

정니리! (발걸이에 두 발을 걸고 손으로 먼지를 일으킴)

종와침마미! (말의 꼬리쪽을 베고 누움)

쌍마입마상! (말 두 마리에 다리 하나씩 놓고 선다)

[이에하루] (흡족해하며 박수) 역시! 역시! 조선의 마상재는 최고입니다.
역시 기마민족의 후예 답습니다.

[조엄] 과찬이십니다! 쇼군.

[이에하루] 우리는 답례로 가부키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부키 공연을 준비하라!

[일본신하들] 예! 쇼군!

#20c. <가부키 음악 : 연주> / 일본 전통악기, 음향

<가부키 공연이 연회의 흥을 더더욱 더해지며 함께 보는 홍도와 사라쿠는 이 장면을 놓칠세라 신나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독으로 만든 먹인지 모르는 구미코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오빠를 위해 먹을 열심히 갈고 독의 기운이 퍼지는지 먹을 갈수록 구미코의 안색이 어두워지며 기침이 잦아진다. 어느덧 연회의 막바지에 이르자 쇼군이 마무리 발언을 한다>

[이에하루] 완벽한 날입니다! 완벽한 밤입니다! 후대에 기록될 평화의 밤입니다! 통신사를 위하여! 일본과 조선의 평화를 위하여!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M20. <사절단은 양국의 보배 : 코러스> / 통신사 일행

[통신사일행] **통신사로 세상에 나와 세상을 누리고 다녔다**
세상을 누리고 다니다가 세상의 보배가 되었다
통신사로 세상에 나와 평화를 전하고 다녔다
평화를 전하고 다니다가 세상의 다리가 되었다
조선과 일본은 맥이 같지만 서로 뜻을 달리하고 있다
뜻을 달리하기는 쉬우나 함께 하기는 쉽지 않아
칠석날의 까마귀떼 처럼 세상의 다리가 되어
오백명의 통신사가 양국을 이으리라

일본과 조선은 한뿌리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흩어져 가기는 쉬우나 함께 가기는 쉽지 않아
칠석날의 까마귀때처럼 세상의 다리가 되어
오백명의 통신사가 양국을 이으리라
견우와 직녀처럼 조선과 일본의 백성들은
서로를 애틋하게 아끼리라
통신사로 세상에 나와 평화를 전하고 다녔다
평화를 전하고 다니다가 세상의 보배가 되었다
통신사는 세상의 보배 통신사는 세상의 자랑
칠석날의 까마귀떼처럼
조선과 일본에 평화를 이으리라

<연회장에는 다양한 재주꾼들이 재주를 선보이고 쇼군을 비롯한 신하들과 백성, 통신사의 모든 일행은 최고의 연회를 즐기며 서로를 격려한다. 마치 곧 헤어질 것을 아쉬워하는 것처럼, 최대의 축제 분위기다>

#21장 홍도와 사라쿠 남매의 이별, 에도성

<에도성까지 오는 기간은 멀었지만 돌아가야 할 시간은 금방 다가왔다. 통신사 일행은 고향에 돌아갈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숙소의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구미코는 기침이 잦아 힘들어 한다. 독에 중독되어 더더욱 병색이 짙은 얼굴로 누워 있는 구미코를 홍도와 사라쿠가 곁에서 안쓰러워하며 돌보고 있다>

[홍도] (걱정스러운 듯이) 구미코 괜찮아? 어제 너무 무리했나 보네.

[사라쿠] (구미코의 이마를 짚으며) 이마에 열이 많이 나네!
(수건을 구미코의 이마에 올려주며) 아무래도 약을 지어 와야겠어.

[구미코] (기침을 계속하며) 쿨럭, 쿨럭, 쿨럭…. 오늘 쉬고 나면 괜찮겠지….
약은 괜찮고 그냥 옆에 있어 줘…. (스르륵 잠이 들며)

<구미코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한 홍도와 사라쿠는 본인들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나 구미코는 살짝 잠들었기에 곧 잠에서 깨어 자는척하며 두 오빠의 대화를 듣고 있다>

[홍도] (머뭇거리며) 사라쿠! 함께 조선으로도 가보지 않겠어?
조선에도 볼 것이 많아 네 그림의 소재들도 많을 거야.

[사라쿠] 안돼……. 구미코도 아프고….

[홍도] 당연히 구미코가 다 나으면 함께 가자는 거지!

[사라쿠] (하늘을 응시하며) 말은 고맙지만 난 내 나라가 좋아….
네가 조선이 좋듯이….

[홍도] (사라쿠를 응시하며)…….

[사라쿠] 여기는 큰 성이라 내가 좋아하는 스모 공연도 자주 볼 수 있고, 가부키도 맘껏 보고 우키요에도 실컷 그려 보고 싶어.

[홍도]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구미코도 생각해야지?

[사라쿠] 맞아! 딱 한 가지 동생이 걱정돼.
그럼, 구미코를 조선으로 데려가 줄래?
너도 눈치챘겠지만, 구미코도 널 좋아하는 것 같아.

[홍도] (단호하게) 아니! 모두 같이 조선으로 가자!
나도 도화서의 화원이니까 너희를 도울 수 있거든.

[사라쿠] (쓸쓸하게) 아니!
내 맘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다만 구미코만이라도 부탁해.

[홍도] (사라쿠를 응시하며)…….

<홍도는 사라쿠와 헤어질 생각에 마음이 참참하여 악기를 튕기면서 허전함을 달래고 있다.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홍도를 아무런 말 없이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미코, 결국, 힘은 없지만, 마지막 힘과 용기를 내어 홍도 앞으로 다가간다. 첩자는 흘린 먹을 찾던 중 우연히 이 모습을 보며 엿듣고 있다>

[구미코] (기침하며) 사라쿠 오빠한테 말 들었어. 내일 조선으로 떠난다며, 나도 가고 싶어 그런데…….
(기침을 더욱 거칠게 하며) 그런데…….

[홍도] 아니야! 싫다는 말은 하지 말아 제발…….

[구미코] 내가 사라쿠 오빠 곁을 지켜 줘야 하는 거 이해하지?
먹도 갈아 주고 붓도 정리해주고….
사라쿠 오빠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구미코] (헤어진다는 생각에 눈물만 뚝뚝) 흑…. 흑…. 흑….
(힘없이 쓰러지며)

[홍도] (쓰러지는 구미코를 부축하며) 알았어! 일단 몸부터 나아야지
(애써 웃으며) 조선에 돌아갔다가 내 금방 다시 올게
금방 다시 올 테니까 울지마 우리 웃자 웃어
(애써 웃으며 퇴장) 하, 하, 하....

<구미코는 직감적으로 홍도와 마지막이라는 것과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지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홍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 최대한 힘을 내어 웃으며 이야기한다>

[구미코] (병색이 깊은 웃음으로) 그래, 그러면 되지….
갔다가 금방 와야 해…….
(홍도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독백 - 부모님이 보고 싶네……. 내 부모님도 금방 다시 돌아온다, 하시고는 끝내 돌아오시지 않았지….)
(힘겹게 일어나서)

#M21. <내가 그대의 그림이 되리라 : 솔로> / 구미코

[구미코] **조선의 화원 홍도여 왜 나를 세상에 그리고 가는가**
사람마다 인연이 있다지만 난 그대의 연이 아닌가
어차피 될 수 없는 인연이라면 나 그대의 그림으로 남고 싶소
조선의 화원 홍도여 나를 더욱더 세상에 그리시오
내 그대의 연이 될 수 없으니 그림으로나마 인연이 되리라
어찌하여 삶이 나에게는 이리도 매정한지 모르오
부모 없이 자란 내가 무슨 연을 기대할까
먹을 갈아 삶이 내게 준 매정한 기억을 지우고 싶소
먹을 갈아 삶이 내게 준 차가운 느낌을 지우고 말리
갈고 갈아 새까만 먹물 위에 새로운 내 삶을 가득 넣으리라
사랑이여 삶이여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구미코는 곧 쓰러지며 먹도 같이 떨어트린다. 첩자는 흘린 먹을 찾기 위해 나왔다가 쓰러진 구미코를 보고 달려가고 구미코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먹을 발견한다>

[첩자]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독백 - 아니 이 먹이 왜 여기에 있지? 이 아이는 그림 그리던 아이 같은데…….아니! 이 먹이! 왜! 여기에……. 떨어져……. 있지?)
(상황을 이해하고) 아! 이 어린아이가 나 때문에 독에 중독되었구나!이 어린아이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책으로 비틀거리며 퇴장)

<첩자가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무엇엔가 부딪쳤다 다시 비틀거리며 퇴장한다>

#22장 조선으로 귀환, 에도

<통신사 일행은 귀환준비에 분주하고 정사는 배웅나온 쇼군, 신하들과 이별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다. 통신사 일행중 일부는 에도에 머무는 동안에 일본 백성들과 정이 들어 서로 얼싸안고 석별의 정을 나눈다. 아쉬워 눈시울을 훔치는 사람, 가는 동안 먹으라고 음식을 챙겨주는 사람, 옷가지를 챙겨주는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 어깨를 주물러 주는 사람, 오직 첩자만이 암울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참회 중이다>

[조선인1] 머무는 동안 잘 대접 받고 가오. 일본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듯한지 몰랐소. 조선에 돌아가서 이 따듯한 마음을 주변에 알리고 후대까지도 전하겠소.

[일본인1] 아니요, 별말씀을….
며칠 더 묵고 가면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조선인2]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몇 달은 걸리니….
서둘러 출발하는 것이 맞겠지요. 또 더 있으면 뭐 하겠소?
어차피 돌아가야 하는데…. 정만 더 쌓이겠지….

[일본인2] (울먹이며)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소?

[조선인2] (더 울먹이며) 글쎄 다시 만나자고 기약 없는 기약을 해야겠구먼….
뭐, 각자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또, 만나지지 않겠소.

[조선인3] 잘들 계시오, 있는 동안 감사했소.

[일본인3] 잘들 가시오, 조심해서 가시오.

[조선인1.2.3]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일본인1.2.3] 그대들도 건강하게 살다가 또 봅시다.

<여러 명의 통신사 일행과 일본 백성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울먹인다>

[이에하루] 머무는 동안 편히 계셨습니까?

[조엄] 그럼요, 집보다 더 편히 머물렀습니다.

[이에하루] 정사,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아무렴 집보다 더 편하셨겠소,
(환하게 웃으며) 그래도 듣기는 좋소, 일본의 평화의 국서도 반드시 조선의 임금께 잘 전해 주시구려.

[조엄] 예! 쇼군,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에하루] 그럼, 먼 길이니, 어서들 가시구려 장장 3000km의 여정! 통신사의 노고는 후대까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은 들어라! 조선의 통신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통신사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최대한 편의를 보고 돕도록 하라! 우리 일본의 손님들이 무사히 조선으로, 이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라!

[일본신하들] 예! 쇼군! (팔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통신사! 통신사! 통신사!

<일행은 쇼군과 일본 백성들의 아쉬움 속에 환대한 송별을 받으며 통신사는 조선을 향해 귀환길에 오른다>

[동수] (우렁차게) 자! 출발한다! 고향을 향해 출발한다!
북을 울려라! 나팔을 울려라!

#22a. <BGM : 북, 나팔, 환영 행렬의 함성>

[자막/나레이션] 조선통신사 일행은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가고 두 나라의 그림과 문헌으로도 기록된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선별된 많은 재주꾼은 각자의 고향으로 귀환하여 일본에서의 환대와 오랜 여정에 있었던 무용담을 전하여 후대에도 기억된다.

#23장 에필로그, 30년 만의 홍도와 사라쿠의 해후

<홍도가 조선통신사절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사라쿠 남매를 못 잊은 홍도는 결국, 혼자의 몸으로 일본으로 다시 향한다. 그리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자마자, 남매를 처음 만났던 곳을 찾아 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찾아내고 가부키 공연장 한쪽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라쿠를 보고 반가워 뛰어간다>

[홍도] (격앙된 목소리로) 사라쿠! 도슈사이 사라쿠! 나의 친구여!
잘 지냈는가?

[사라쿠] (잘 몰라보다 눈을 둥그렇게 뜨고) 홍도? 이게 누군가?
내 친구 홍도가 맞는가?

[홍도] (반갑게) 그래 맞네! 그 사이 단원이라는 호도 얻었다네.

[사라쿠] (기뻐하며 부둥켜안고) 대단하구먼. 역시 자네는 천재야! 천재!

[홍도] 사라쿠! 자네가 천재지! 자네에 비하면 나는 둔재네 하하하
그런데 구미코는 어디 갔는가?

[사라쿠]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아무 말 없이)…….

[홍도] 왜 그러나?

[사라쿠] (여전히 묵묵부답)…….

[홍도] 왜 그러나? 답답하게, 내가 여기까지 왜 다시 왔는지 알지 않는가?
나는 괜찮네, 어디 시집이라도 갔는가?

[사라쿠] .....

[홍도] (섭섭한 표정) 괜찮다니까…….
시집갔으면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오면 되지.
(안달이 나서) 어서 앞장서게 멀리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오겠네.

[사라쿠] (체념한 듯) 그래 가보자고 따라오게.

[홍도] (불안해하며) 그래! 어서 앞장서게.

<어쩔 수 없이 사라쿠는 홍도를 호적한 곳에 있는 공산사로 인도한다. 홍도는 불안해하며 가슴을 움켜쥐고 사라쿠의 뒤를 바짝 따른다. 절에 거의 다다를 무렵, 통신사 일행을 방해하고 구미코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첩자는 어느새 노승이 되어 절의 검은탑 주위를 돌며 구미코의 명복을 빌어주고 있다>

[노승/첩자]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계속한다)
(독백 - 나 때문에 죽은 혼들이여 미안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나 때문에 죽은 어린 구미코여!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계속한다)

<검은 탑 앞으로 가까이 온 사라쿠는 홍도에게 구미코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울먹이지만, 이미 홍도는 이상한 낌새를 차린다>

[사라쿠] (간신히 입을 떼며) 미안한 소식을 전하네…. 구미코는 30년 전 자네가 떠난 직후 며칠을 앓더니 세상을 떠났네…. 다행히 웃으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떠났다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맙게도 저기 스님께서 30년째 매일 저렇게도 정성스럽게 명복을 빌어 주고 계신다네…. 이제 와 이야기지만 구미코가 자네를 매우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네….

[홍도] (안 믿는 표정) 농담하지 말고 계속 앞장서게….

[사라쿠] ....., 이 탑이 구미코의 유골이 봉안된 탑이네.

[홍도] (언성을 높이며) 농담하지 말고 어서 앞장서게! 어서…….
(말을 잊지 못하다 탑 앞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낀다)

#M23a. <그대의 모습 : 솔로> / 김홍도

[김홍도] **보고 싶다는 그 한마디 말, 삼십 년간 참고 또 참았소**
어디를 보아도 그대는 없지만, 어디를 보아도 그대가 보이오
그대의 모습을 삼십 년간, 허공에 그리고 또 그렸소
그대의 느낌도 사라지고 그대의 웃음만 희미하게 남아
홀로 먼저 가는 그 마음을 홀로 기다리는 이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그 누가 느낄 수가 있겠소
찢어 질듯한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서 끝에서 기다리나
저 세상 끝에서 기다리나 그대 있는 곳 알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대 볼 수 있다면 곧 만납시다 나의 사랑아
곧 만납시다 나의 연인아 온 세상 훨훨 날아다니다
빨리 만납시다! 나의 사랑아!
어디를 보아도 그대는 없지만, 어디를 보아도 그대가 보이오.

곧 만납시다 함께 훨훨 날아 갑시다!

<홍도가 정신없이 흐느끼고 나서 힘없이 사라쿠와 이야기를 이어간다>

[홍도] 자네 근황은 어떠한가?
당연히 우키요에는 열심히 그리고 있을 것이고….

[사라쿠] 열심히 그리고는 있는데….
나의 그림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네….
심지어 내 그림이 흉측하다는군….
사람들은 보기 좋은 것만 보려 하는 것 같아. 난 배우의 단점이나 특징을 강조하여 배우의 내면을 담으려 한 것인데 말이야. 목판화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그림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뚜렷한 도안!대담한 구도로 많은 풍속화와 인물들을 그리고 싶었네…
아니! 그리고 있다네. 자넨 그사이 조선 최고의 화원이 되었다지? 난 그리 믿고 있었어.

[홍도] 과찬이네.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할까?
그래야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이네. 전에 풍속화 그릴 때가 좋았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대부들이 추종하는 중국풍의 문인화나 그리고 있다네. 차라리 자네처럼 마음껏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그리면서 살고 싶네. 아무튼, 자네도 너무 힘없어하지 말게나. 지금이야 자네 그림을 사람들이 몰라 줄지언정 언젠가는 세상이 자네의 그림에 빚을 지게 될 것이네.

[사라쿠] 고맙네! 홍도! 자네도 이전처럼 자네만의 그림을 그리게
자네가 이야기했듯이 삶이 길지는 않지 않은가?
나도 비록 사람들이 내 그림이 못났다고 비웃고 있지만 난 계속 그릴 거라네 난 멈추지 않을 거네.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춘다면 곧 나의 생명도 멈추는 거겠지!

#M23b. <내가 그리는 이유 : 솔로> / 사라쿠

[사라쿠] **내가 그리는 이유는 내가 살아 있기 때문이고**
내가 숨쉬는 이유는 내가 그리고 있기 때문이야
나의 그림은 엉뚱하고 괴상하지만
나의 정열은 특정적이고 독창적이라네

사람들의 무관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무관심이 나를 더욱더 그리게 만든다네
그 무관심은 내게 그림을 그만두라 속삭이지만
난 한 번도 그 속삭임에 넘어 간적이 없지
나는 그리고 또 그릴거라네
나는 그리고 또 계속 그릴거라네

[홍도] (머뭇거리며) 사라쿠!
이제라도 나를 따라 조선으로도 가보지 않겠나?
조선에도 볼 것이 많아, 자네 그림의 소재들도 많을 거야.

[사라쿠] (하늘을 응시하며) 말은 고맙지만 난 내 나라가 좋아…….
자네가 조선이 좋듯이….

[홍도] (사라쿠를 응시하며)…….

[사라쿠] 자네 덕분에 외로운 길만은 아니었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딱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에 나의 길을 갈 수 있었다네.

[홍도] 자네 덕분에 외로운 길만은 아니었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딱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에 나의 길을 갈 수 있었다네.

#M23c. <시절은 그림속으로 마음속으로 : 낭독> / 홍도, 사라쿠

[사라쿠] **사람으로 태어나 한길만을 걸어갔네**
[홍도] **사람으로 태어나 한길만을 걸어갔네**
[사라쿠] **어차피 주어진 삶 한길이면 어떻고 두길이면 어떠한가**
[홍도] **어차피 주어진 삶 한길이면 어떻고 두길이면 어떠한가**
[사라쿠] **시절의 무상함 만이 야속할 뿐이네**
[홍도] **시절의 무상함 만이 야속할 뿐이네**
[사라쿠] **우리의 시절은 우리의 그림속에 그려지고**
우리의 삶은 마음속에 그려진다네
[홍도] **우리의 시절은 우리의 그림속에 그려지고**
우리의 삶은 마음속에 그려진다네
[사라쿠.홍도] **사람으로 태어나 한길만을 걸어왔네**
진실로 아름답고 멋진 길이었네
우리의 추억은 그림속에 그려지고
우리의 삶은 마음속에 그려진다네

#24장 1806년, 외딴 시골 초가집, 회상, 전주

#24. <BGM : 우리는 통신사> / 코러스

<배경음악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며 조명 페이드 업, 배경으로는 홍도의 그림과 사라쿠의 그림이 걸려있고 무대에는 백발의 노인이 된 홍도가 그림을 그리다, 옛일들을 회상한다. 화면의 영상으로는 통신사들이 지나온 발자취들이 상영된다>

[자막/나레이션] 통신사는 204년 동안 12회의 교류로 조선과 일본을 넘어 동양의 문화, 문물 교류에 영향을 끼치며 평화와 우호의 시대로 기록된다. 양국의 협력으로 2017년 10월 조선통신사 행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평화의 길로 써 세상에 더더욱 알려진다.

#M24a. <통신사는 세상의 보배 : 코러스> / 출연진 모두